

## 경상감영의 인재 선발과 낙육재 동연록(同研錄)

장 인 진\*

경상감영 낙육재의 역사를 주요 관찰사별로 시대 구분하고, 주도적으로 공헌한 6명을 설정하였다. 조태억이 낙육재를 설립한 이후 조현명은 침체된 낙육재를 중창하여 절목[학규]을 확정하고, 토지[학전]를 마련하였으며, 영조로부터 도서 3종의 내사본(內賜本)을 받았다. 윤광안은 새롭게 관선당, 장서각을 마련하고, 도서를 확충하였다. 엄세영, 조기하, 이현영 등은 학교을 일으키고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목표에 관심을 갖고 일조하였다.

인재 선발은 감영에서 백일장을 열어서 선발하였다. 정원은 30명을 뽑아 절반의 인원으로 1개월씩 교대로 학습하였다. 1800년경부터는 대체로 15명을 선발하여 1년간 관비 지출을 함에 따라 무료 숙식으로 거재하였다. 1902년부터는 대개 1개월 단위로 선발하여 1개월씩 거재하였다. 신교육이 대두되던 시기에 명맥을 유지하는 차원이었다.

이번에 필자는 그간에 수집한 낙육재 동연생을 종합하였다. 영조·정조 연간 70명, 순조·헌종·철종 연간 106명, 고종 연간 315명 등 491명이다. 이 인원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낙육재는 경상감사의 인재 양성 의지에 힘입어 교육 예산이 비교적 풍족하였고 교육여건이 좋아서 한 번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수차례 선발되어 거재하기도 하였으니, 선발자를 거재 횟수별 살펴보면 1회 356명(72.5%), 2회 101명(20.57%), 3회 27명

(5.5%), 4회 7명(1.43%) 등 491명이다. 이를 연인원으로 환산하면 667명이다. 2~4회 선발되어 거재한다는 것은 유생들이 낙육재 선발·거재를 영예롭게 여겼다고 생각한다.

낙육재 거재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5세에서 73세까지 다양하였다. 그 중에서 30대가 가장 많고, 다음이 20대이며, 그 다음이 40대이다. 낙육재가 기초 학습기관이 아닌 연학(研學)의 교육기관임을 입증해주고 있다.

재생들 가운데 문집을 남긴 사람 76명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낙육재 관련 글은 시 작품이 많다. 거재할 때 재생들이 시구(詩句)를 번갈아 지었던 연구(聯句), 동일한 시제의 차운, 독서·사물·계절을 읊은 것 등 다양하였다. 관찰사와 송별할 때의 전별시, 동연의 벗과 이별할 때의 임별시 같은 것이 여러 편이었고, 향음례·정음례를 행할 때 읊은 것도 더러 있다. 낙육재 이견할 때의 시에서는 남의 집을 빌려서 낙성해야만 했던 1904년 시대상이 그려져 있다.

재생의 문장으로는 건물을 신축 또는 중수할 때 지은 기문을 포함하여 상량문, 각종 서문, 유록 등이 있는데 낙육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글이다. 한편 재생의 글 가운데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오록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세월이 지나서 편집한 글임을 감안하면 고증이 잘못되었을 것이다.

재생 가운데는 구한말 애국 계몽의식을 지닌 사람으로 위정척사를 주창한 허원식을 포함하여 7명을 확인하였다. 낙육재가 철폐된 이후 재생 가운데는 문우관을 세워 문풍을 전하기도, 협성학교를 창립하여 신교육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번 연구에서 필자는 낙육재 동연생을 각종 문헌에서 491명(연인원 667명)을 수집하여 조선시대 경상도 공교육의 '영학 동연파(營學 同研派)'이라는 새로운 인적자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인명의 활용을 기대해 본다.

핵심 단어: 낙육재, 영학, 동연록, 재록, 조태억, 조현명, 윤광안, 엄세영, 경상감영, 협성학교

## 1. 머리말

조선시대의 지방교육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 초기로부터 향교와 서원이 담당하였다. 17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 대체로 지방 향교의 교육은 해이해지고, 서원도 강학보다는 사헌 기능에 치우친 현상이 나타났다. 이 시기에 실학자 또는 지방관을 중심으로 교육 개혁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반계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은 『반계수록』<sup>1)</sup>에서 당시 지방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내용을 요약하면 주부군현(州府郡縣)의 읍학(邑學)[향교]과 서울의 사학(四學)을 1차 교육기관으로, 각 도의 영학(營學)[감영 학교]과 서울의 중학(中學)을 2차 교육기관으로, 중앙의 태학(太學)[성균관]을 최고 학교로 하고, 능력에 따른 천거에 의해 진학하도록 하였다. 즉 지방 교육의 단계는 ‘읍학 → 영학 → 국학’으로 제도화하고자 했는데 그 가운데 영학의 기능을 중시하였다. 유형원의 이 제도는 과거시험으로 선발하는 과거제(科擧制)를 대신하여 천거에 의해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이다.<sup>2)</sup>

『반계수록』은 1670년에 완성하였지만 당시 조야에서 주목하였다. 1678년 6월에 전 참봉 배상유(裴尙瑜)가 이 책 가운데 전제(田制)·병제(兵制)·학제(學制) 등 7조목을 시행할 것을 상소한 일이 있다.<sup>3)</sup> 이즈음 유학자 윤증(尹拯, 1629-1712)의 집에서도 『반계수록』을 소장하고 있었다.<sup>4)</sup> 윤증

1) 『磻溪隱錄』은 유형원이 1652년에 起稿하여 1670년에 완성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678년 6월 20일에 前參奉 裴尙瑜가 『반계수록』의 내용 가운데 田制, 兵制, 學制 등 7조목을 시행하도록 상소한 일이 있고, 1741년 2월 23일에는 前承旨 梁得中이 經筵에서 『朱子語類』 대신 『磻溪隨錄』을 講하도록 상소한 바 있다.

2) 柳馨遠, 『磻溪隱錄』(목판본, 1770년). 卷9, 「敎選之制」, ‘學校事目’ 이 부분은 필자의 「경상감영 낙육제의 교육과 문화 소통」(『영남학』 20호, 2011)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3) 『조선왕조실록』, 숙종 4년(1678) 6월 20일 기축 조.

4) 『조선왕조실록』, 영조 17년(1741) 2월 23일 조에 前承旨 梁得中이 經筵에서 『朱子語類』

이 이 책을 열람했다는 뜻이다.

17세기 이후 유형원의 학제 영향을 받고 영학(營學)이 설립되는데, 경상감영의 낙육재는 1721년에 경상감사 조태억(趙泰億)이 대구부 남문 밖<sup>5)</sup>에 설립한 영학이다. 낙육재는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즈음 각 도에서 설치한 영학의 실태를 살펴보면 일부이긴 하지만 전라감영의 희현당(希顯堂),<sup>6)</sup> 황해감영의 사황재(思皇齋)<sup>7)</sup> 등이 있다.<sup>8)</sup> 장학기구로서는 평양에 설치한 섬학교(瞻學庫)가 있었다.<sup>9)</sup>

영학을 중시한 점은 1798년 칠원현감 박명섭의 상소에서도 확인된다.<sup>10)</sup>

대신 『磻溪隨錄』을 講하도록 상소하니, 그 책자를 道臣으로 하여금 가져다 바치도록 비답을 내렸는데, 내용 중에 이 말이 언급되어 있다.

- 5) 1978년 당시 필자가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남산교회 근처로 추정하였다.
- 6) 全羅監營 편, 『全羅監營誌』(필사본, 1789년), 希顯堂 조, “在州城西二里, 居接儒生通一年, 元數四十人試取, 每三朔十人式入接, 做工糧饌, 自養土庫上下.” 및 『輿地圖書下』(한국사료총서 제20집) > 補遺篇(全羅道) > 『完山誌』, “希顯堂在府西四里司馬齋舊址, 肅宗庚辰觀察使金公時傑創建此堂, 選一道有文才者爲莊修之所, 英宗戊午觀察使李周鎮重修, 設置屯田益廣養土之規.”에서 보듯이, 1700년에 전라감사 김시걸이 전주 서문 밖에 설립한 것인데, 비용은 養土庫에서 수급하였다. 낙육재 보다 설립은 빨랐으나, 본격적 운영은 1738년 이후였다. 전라도 유생 40인을 定額으로, 1년에 한 번씩 전라감영에서 선발하여 居齋도록 하였는데, 뽑힌 40인을 10인씩 나누어서 1년에 3개월간 교육시켰으므로 경상도 낙육재의 교육 연한[6개월 또는 1년]과는 다르다. 희현당 관련 문헌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李敦榮 감사가 편한 『希顯堂聯句』(필사본, 1841년) 1책을 目接할 수 있는데, 내용은 居齋儒生 20인의 시문을 수록한 것이다. 그리고 희현당에서 간행한 民間 鑄造의 鐵活字 인쇄본이 數十種 전해지고 있다.
- 7) 海州郡 편, 『海州誌』(필사본)의 思皇齋 조에 의하면 해주 西門 밖에 있었다. 1723년에 감사 宋成明이 향교 앞에 養土齋를 설치했으나 철폐되었고, 1731년에 徐宗玉이 城西에 설치하여 齋名을 思皇齋라 하고 記文을 지었다. 徐命膺, 『保晚齋集』(聚珍字本, 1838년), 권8, 「遺愛閣記」, “思皇齋, 先公[徐宗玉]之所勗設, 而土至今肄業.”, 같은 책, 권14, 「先考文敏公府君行狀」, “己酉…十二月出爲黃海監司…立思皇齋, 置瞻學田養土錢, 試取一道士居業, 賞罰其勤怠.”
- 8) 이성삼, 「조선후기 지방교육 연구」(한국교원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에는 영학으로 함경도의 양현당(1469), 평안도의 장도회(1507), 황해도의 사황재(1723), 충청도의 영학원(1887) 등을 추가하였다.
- 9) 尹游 편, 『平壤續誌』(목판본, 1730), 卷1, 22頁의 瞻學庫 조에 의하면 甲子年(1684)에 감사 柳尙運이 창설한 것인데, 養土하는 各齋에 需給을 관장하였다.
- 10) 『조선왕조실록』, 정조 22년(1798) 11월 15일 조.

상소의 내용을 요약하면 인재를 쓰는 데는 ①고을[郡縣]에서 뽑아 향교에 보내어 경서 강론하고 의리 궁구토록 할 것. ②고을에서 추천하여 감영의 낙육재로 올려보낼 것. ③감영에서 추천하여 성균관으로 올려보내어 그 재주를 시험하여 채용하는 데 대비할 것. 등 3단계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조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낙육재에 대한 필자의 관심은 1978년부터였다. 「영남 낙육재 고」<sup>11)</sup>에서는 낙육재가 성종 때 시행한 독서당의 성격을 지녔다는 인식에 따라 도서관적 관점에서 구명하였지만, 낙육재의 설립과 재생의 선발 및 거재, 행사 등을 다룬 최초 보고서였다. 여기서 낙육재에서 편성한 필사본 『재록』 2책, 『강목강어』 2책, 『정읍강론록』 1책 등을 발굴하여 자료의 성격을 논하였고,<sup>12)</sup> 이 자료를 중심으로 선발·거재 횡수별, 연령별, 지역별 등에 대해 통계를 작성하였다. 또 현존 낙육재 장서에 대해서도 목록을 작성하였다. 「경상감영의 낙육재 교육에 대하여」<sup>13)</sup>에서는 낙육재를 경상도 영학(營學)으로 정의하고 시설 규모와 재원(財源), 연간 세입과 지출 비목, 거재생활, 철폐와 후대 영향 등에 대해 논급한 뒤 『정읍강론록』을 중심으로 정읍례를 재현하였다. 「경상감영 낙육재의 교육과 문화 소통」<sup>14)</sup>에서는 유형원의 「학교사목(學校事目)」에 근거하여 영학(營學)으로서의 성격을 밝히고 문화 소통에 중점을 두었다. 「경상감영 낙육재의 교육문화와 재생」<sup>15)</sup>

11) 장인진, 「영남 낙육재 고 - 특히 영남지방의 도서관적 기능과 그 효시로서」, 『圖書館報』 3호, 대구시립도서관(《대구광역시통합도서관》 > 통합도서관 > 발간자료 > 圖書館報, 제 3호), 1978, 89-114쪽.

12) 이성심, 앞의 학위논문을 보면, 필자의 논문(1992년)이 인용되어 있다. 인용된 논문에는 필자가 1978년 대구시립도서관 소장본에서 발굴한 낙육재 자료 4종을 각주에 소개하였다. 그런데 그가 대구시립중앙도서관의 낙육재 자료를 열람·분석했는데도 필자의 선행 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아쉽다.

13) 장인진, 「경상감영의 낙육재 교육에 대하여」, 『漢文學研究』 8집, 계명한문학회, 1992, 177-198쪽.

14) 장인진, 「경상감영 낙육재의 교육과 문화소통」, 『嶺南學』 20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1, 247-287쪽.

15) 장인진, 「경상감영 낙육재의 교육문화와 재생」, 『漢文學研究』 23집, 계명한문학회, 2014, 107-150쪽.

에서는 교육 내용을 심화하고 향음주례를 고찰하였다.

필자는 1978년부터 낙육재 동연생(同研生)을 명단을 수집해왔다. 동연생이란 동창생을 의미하며, 전체의 명단이 동연록(同研錄)인 것이다. 이번에 명단을 학계에 제공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먼저 선발된 자의 거재 횡수별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 수차례 지원하여 거재함이 있다면 당시 선비들이 낙육재에 대한 자긍심과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연령별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낙육재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어떤 성격을 지녔는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재생들의 문집 현황과 낙육재 관련 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 후, 행적이 두드러진 사람들과 한말의 애국 계몽의식을 보인 재생들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아울러 경상도 인재 양성에 의지를 보인 경상감사 몇 사람을 살펴서 낙육재의 흥학적 관점에서 흥망의 사실을 도출해보기로 한다.

## 2. 감사의 인재 양성 의지

1721년 낙육재 설립 이후 경상감사의 업적을 살펴보면 주도한 사람들이 있고, 운영에 일조한 사람들이 있다. 운영에 일조한 사람으로는 정조 때 조시준(趙時俊) 감사와 순조 때 정동관(鄭東觀) 감사 및 정만석(鄭晩錫) 감사 등인데 학전을 추가로 매득하여 낙육재 재정을 확충시킨 바 있다.

한 기관을 경영하는 데는 규칙, 운영, 시설, 재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할 때 주도적으로 공헌한 사람으로는 초반기의 조태억·조현명과 중반기의 윤광안 그리고 후반기의 엄세영·조기하·이현영 등 6명을 들 수 있는데, 낙육재 역사와 관련된다. 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조태억

조태억(趙泰億, 1675-1728) 관찰사는 1721년(경종 원년) 낙육재를 설립하였다. 경상도 내의 선비를 선발하여 친히 문의(文義)에 대해 강론하고, 그 공부한 것을 평가하여 상벌을 시행하니, 여러 선비가 낙육재 곁에 돌을 세워서 유학의 교화를 칭송하였다.<sup>16)</sup> 그리고 낙육재 유생들의 청에 의하여 「낙육재 절목서(樂育齋節目序)」를 지었다. 당시에 정했던 낙육재 절목은 후대에 전해지지 않는다. 그의 문집에도 실려 있지 않아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후일 조현명 감사가 낙육재 절목을 정함에 있어서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조태억의 「낙육재절목서」 앞부분을 보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나무를 가꾸어 기르는 것과 같다(人材之養育 如養木).’라고 하고서는 교육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 도의 선비의 기상을 진작하고 한 도의 영재를 양성하는 것이 진실로 감사의 책임이라 하겠으니, 마음과 힘을 다 쏟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에 관서의 심학고(瞻學庫)의 예를 모방하여 재(齋)를 설치하고 학전을 두며 또 미곡, 노비, 기명(器皿)을 출연하여 공양하는 여러 선비들의 자금으로 삼았고, 한 도 안에 나아가 재주 높고 뜻이 돈독한 선비를 초선(抄選)하여 재사에 머물게 하고 학업을 권장하여 성취하는 바가 있게 하니, 이 또한 한나라 때 효렴(孝廉)과 향공(鄉貢)의 끼친 뜻이다.<sup>17)</sup>

16) 李德壽, 『西堂私載』, 권12, 「議政府左議政趙公[泰億]行狀」, “立樂育齋於營下, 充以道內儒士, 親與講論文義, 課其所業而賞罰之, 多士立石齋傍 以頌儒化.”

17) 趙泰億, 『謙齋集』(필사본), 권41, 「樂育齋節目序」, “其所以作一路之士氣, 育一路之英才, 是誠按臬者之責, 其可不盡心乎哉, 乃倣關西之瞻學庫例, 設齋置田, 又捐出米穀奴婢器皿,

그는 평안도 섬학교의 예를 모방하여 낙육재를 설치하였고, 학전(學田)을 두었으며 미곡(米穀)과 노비, 기명(器皿)[그릇들] 등을 출연하여 여러 선비들을 양성하는 자금으로 삼았다. 그리고 도내에서 재주 높고 뜻이 돈독한 선비를 뽑아서 재사(齋舍)에 머물게 하면서 학업을 권장하였는데 성취함이 있었다.

조태역의 이러한 교육 열망이 있었음에도 당시 영남 유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못했는지 10년이 못되어 학풍이 해이해지고 말았다. 이만부(李萬敷, 1664-1732)는 이점에 대하여 “본 재는 선배[조태역]가 창건하였는데 그 뜻은 비록 아름답지만 도회(都會)에서 선발된 우등자 몇 사람에게 지나지 않을 따름이니, 낙육(樂育)의 본 뜻은 아니다.”<sup>18)</sup>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조태역의 『겸재집(謙齋集)』에는 그가 경상감사로 재임할 당시에 지은 시는 몇 수 있으나, 낙육재생과 지은 시는 확인할 수 없다. 당시 「낙육재절목서」를 칭한 낙육재생도 알기가 쉽지 않다.

## 2) 조현명

낙육재를 경상감영의 교육기관으로 기반을 다진 사람은 1730년 7월부터 1732년에 10월까지 재임한 조현명(趙顯命, 1690-1752) 감사이다.

그는 낙육재를 중창(重創)한 후 도내 선비들에게 보낸 「권학절목(勸學節目)」<sup>19)</sup>과 「낙육재절목(樂育齋節目)」을 제정하고, 사색(四色) 불문하고

以爲供養多士之資，就一道之中，抄選高才篤志之士，延置齋舍，勸課學業，俾有成就，是亦漢時孝廉鄉貢之遺意也。”

18) 李萬敷, 『息山先生續集』(목판본, 1813년), 권4, 「答趙時晦[顯命]」, ‘別紙樂育齋節目’, “本齋乃前輩所創, 其意雖美, 然只聚都會優等若干人而已, 非樂育之本意.”

19) 趙顯命, 『歸鹿集』(필사본), 권19, 「通諭道內士友文」에 ‘권학절목’ 14조를 넣었다. 이 때에는 面訓長, 邑에는 都訓長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鄭萬陽·鄭葵陽, 『堯麓兩先生文集』(목판본), 권8, 「答趙方伯」을 보면 정규양이 ‘通諭節目添補二條’를 건의하였다.

입학시켰다. 손수 낙육재 상량문을 지었고, 학전(學田)을 경상도 여러 곳에 마련하여 지역별로 지원되도록 하였다. 그런 후에 낙육재를 중창한 사실을 영조께 상소하여 『대학(大學)』, 『심경(心經)』, 『근사록(近思錄)』 등 3종을 낙육재에 하사받게 하여 교육을 진작시켰다.<sup>20)</sup>

학규(學規)라 할 수 있는 「낙육재절목」은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낙육재 절목

낙육재 절목은 경상감사 조현명이 이만부(李萬敷)에게 내품(來稟)하여 정한 것이다.<sup>21)</sup> 7개 항의 절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① 선취(選取)[선발 방법]

시험은 경서 가운데 의의(疑義)로써 질문 제목으로 내어놓는데, 과규(科規)는 쓰지 못하게 하고 각자의 소견을 아뢰게 하여 그 학식을 관찰한다. 또한 장차 경전과 유가 문자를 그 읽는 부분에 따라 문의(文義), 문난(問難)을 끄집어내어 근태(勤怠)를 살핀다. 혹은 시·부·표·책(詩賦表策) 등에서 제목을 내고, 잘하는 것으로써 지어 올리도록 하여 그 문예를 시험한다. 제술 및 강독으로 30인을 뽑아서 양변으로 나누고, 선발 1대[15인]가 입재(入齋)하여 1개월을 다하면 후발 1대와 그믐날에 다 모였다가 초하룻날 교체하고 물러난다. 이로써 서로가 진퇴(進退)한다.<sup>22)</sup>

20) 『조선왕조실록』, 영조 8년(1732), 윤5월 29일(갑인) 기사. 당시 內賜 받은 3종의 도서 가운데 『近思錄』(戊申字本) 낙질본이 현재 대구광역시립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21) 李萬敷, 앞의 책, 권4, 「答趙時晦[顯命]」, ‘別紙樂育齋節目’ 참조. 증손 李敬儒가撰한 息山の墓誌를 보면 “趙相國之觀察嶺南也, 重修樂育齋, 以養士學規, 來稟于先生以定焉.”이라 하였다.

22) 앞의 책, 「選取」, “其所試, 以經書中疑義, 發爲問目, 使不用科規, 各陳所見, 以觀其學識. 又將經傳及儒家文字, 隨其所讀, 拈出文義問難, 以考其勤怠. 或兼出詩賦表策等題, 令隨其所長製進, 以驗其文藝, 以製述及講讀等第, 取三十人分爲兩番, 先一隊入齋盡一月, 後一隊於晦日畢會, 朔朝替交退去, 以此互爲進退.”

② 재규(齋規)[좌·우재 규정]

오른쪽에는 우재(右齋)라고 이름지어 문학에 뛰어난 사람들을 거처토록 하고, 왼쪽에는 좌재(左齋)라고 이름 지어 지향(志嚮)이 온전치 않은 과업(科業)에 있는 자를 거처토록 한다. 각 번마다 좌·우재 가운데 연장자 1인을 추천하여 공령(功令)으로 삼고, 제생의 지위를 감독(檢督)하게 한다.

보름마다 우재에서는 출제한 글을 지어 올린 것이 ‘몇 번’이라 하고, 좌재에서는 독서를 아무 책에서 강학(講學)한 것이 ‘몇 판’이라 한다. 보름 후에도 또한 그와 같이 한다.

비록 우재의 사람이 스스로 겸강(兼講)[강독을 겸함]을 원하면 들어주고, 좌재의 사람이 스스로 겸술(兼述)[제술을 겸함]을 원하면 들어준다.

날마다 식당에 갈 때는 북<sup>23)</sup>을 한 번 쳐서 울리게 하고, 회강(會講)할 때는 북을 세 번 쳐서 울리게 하며, 일이 있어서 개좌(開坐)할 때도 북을 세 번 쳐서 울리게 한다.<sup>24)</sup>

③ 강규(講規)[강독 규정]

초하루와 보름날에 회강(會講)을 한다. 관장(官長)[관찰사]이 친히 왕립하면 제생(諸生)은 건복(巾服)을 갖추고 동·서 뜰에서 남쪽을 위로 하여 정중히 맞으며, 관장이 당 위로 올라가서 정좌(正坐)한 후에 좌·우의 두 반수(班首)는 공수(拱手)하며 빨리 나아가고 제생도 차례로 뒤따라간다. 계단 아래에 이르면 북쪽을 향하는데, 두 반수는 가운데서, 제생은 동서로 서립(序立)하여 읍례(揖禮)를 행한다. 두 반수가 제생을 인솔해서 물러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또 상읍례(相揖禮)를 행하고 예를 마치면 차례로 당 위로 올라가서 나이순으로 앉는다.

23) 북[鼓]에 대해서는 낙육제생 이상두의 「樂育齋與諸賢詠堂鼓聯句」가 보인다.

24) 李萬敷, 앞의 책, 「齋規」, “名其右曰右齋, 令其長於文學者處之, 名其左曰左齋, 令其志嚮不全在於科業者處之. 每一番, 左右齋中推其年長者一人, 作功令, 以爲檢督諸生之地. 每一壘, 右齋則出題製呈幾度, 左齋則讀某書來講幾板, 壘後亦如之, 雖右齋之人, 自願兼講則聽, 雖左齋之人, 自願兼述則聽. 每日食堂時鳴一鼓, 會講時鳴三鼓, 有事開坐時鳴三鼓.”

읽어야 할 책을 양손으로 받들고 나아가서 책상에 두고, 조금 물러나서 읍(揖)을 한 뒤 강석(講席)에 나아가는데, 글귀를 끄집어 내는데 따라 몸을 바르게 하고 단정히 앉아서 조용히 강독(講讀)한다. 요컨대 구절(句切)은 분명히 하고 성음(聲音)은 창량해야 한다. 만약 글 뜻을 질문하면 비록 자세히 강론한 것이라도 또한 경솔하게 응대해서는 안되고, 다시 생각을 일으키고 살펴서 소견을 모두 진달한다. 가르쳐 줌이 있는 것 같으면 마땅히 유념하여 받아들이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으면 마땅히 표시하여 질문해야 한다.<sup>25)</sup>

#### ④ 술규(述規)[제술 규정]

각기 동접(同接)[함께 공부하는 사람]을 따라 정좌하여 제술하며, 출처나 글 뜻에 미달한 곳이 있으면 마땅히 학문이 뛰어난 자에게 묻고, 학문이 뛰어난 자는 또한 마땅히 아는 바에 따라 모두 이야기하여 숨김이 없어야 한다.

비록 제술(製述)할 때는 두건 벗고 옷자락 헤치며 맨발로 벌렁 누워서 안 된다. 제술을 마치면 각자 시권을 올리고 물러나서 앉아야 하며, 당위에 올라가서 고점(考點)[시험지]을 보아서는 안 된다. 제술을 하는 데는 문체는 순정(純正)·아건(雅健)하도록 힘쓰고, 경의(經義)에 근거를 하며, 불경하고 허탄한 고사를 사용하여 현란하고 눈을 즐겁게 하는 계책을 꾸며서는 안 된다.<sup>26)</sup>

25) 앞의 책, 「講規」, “凡朔望當行會講, 官長親往, 則諸生具巾服, 東西庭南上祇迎, 官長上堂, 定坐後左右兩班首, 拱手趨進, 諸生以次隨之, 至階下北面, 兩班首當中, 諸生東西序立行揖禮, 兩班首率諸生還退復位, 又行相揖禮畢, 以次陞堂序齒坐. 將所讀書, 兩手奉冊, 詣置于案, 少退揖就講席, 隨拈出正體端坐, 從容講讀, 要使句切分明, 聲音暢亮, 若質問文義, 雖所熟講, 亦不可率爾應對, 更爲念起提省, 畢陳所見, 如有所指教, 當留心聽受, 如有所疑晦, 當標出請質.”

26) 앞의 책, 「述規」, “各隨同接, 定坐製述, 如有出處文義未達處, 當問於學優者, 學優者亦當隨其所知, 畢陳毋隱. 雖在製述之時, 不可脫巾披襟跣足偃臥, 凡製述既畢, 各自呈券退坐, 不可上堂, 窺見考點, 凡製述, 文體務爲純正雅健, 根據經義, 不可使用不經虛誕故實, 以爲

## ⑤ 독법(讀法)[독서 방법]

읽어야 할 책은 오서[소학, 대학, 논어, 맹자, 중용]와 오경[시경, 예기, 서경, 역경, 춘추]인데, 순환해가며 이해해야 한다. 유가의 여러 책[근사록, 가례, 심경, 이정전서, 주자대전, 주자어류, 주자서절요 및 기타 성리서]으로 강구하고, 여력이 있으면 역대사전(歷代史傳)을 곁해서 보게 한다.

만약 ‘제술 유생’이 사장(詞章) 취하는 것을 겸하고자 한다면 사마천의 사기(史記), 반고의 한서(漢書), 한·류·구·소(韓柳歐蘇)의 문초류는 읽도록 허락하지만 이단(異端)과 잡기(雜技) 같은 부정한 책에 이르러서는 잠시라도 읽어서는 안 된다.

독서를 함에는 먼저 책상을 정돈해서 정결히 단정하게 하고 서책을 놓는다. 몸을 바르게 하여 찬찬히 읽되 글자마다 분명히 하고, 티무니없이 억지로 암기해서는 안 되며, 단지 저절로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독서는 삼도(三到)가 있어야 하니, 심도(心到), 안도(眼到), 구도(口到)를 말한다.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으면 눈이 자세하게 보지 못하고, 마음과 눈이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면 허랑하게 외고 읽을 수밖에 없어서 결코 기억할 수 없으며, 기억한 것도 오래 갈 수 없다. 삼도 가운데에 심도가 가장 중요하다. 마음이 한 곳에 이르면 눈과 입이 어찌 이르지 않겠는가?

책을 읽는 데는 급박하지 않아야 하고, 누긋해서도 안 된다. 해석하는 문자는 억지로 해석하는 안 되고 범연히 지나쳐서도 안 된다. 오직 역량을 헤아려서 전념함이 마땅하다.<sup>27)</sup>

眩耀悅眼之計.”

27) 앞의 책, 「讀法」, “所讀之書, 則以五書五經, 循環理會, 以儒家諸書(近思錄家禮心經二程全書朱子大全語類節要及他性理之說)講究, 有餘力則兼看歷代史傳. 若製述儒生, 欲兼取詞章, 則如馬班韓柳歐蘇之類 亦許看讀, 至於異端雜技不正之書, 不可頃刻披閱. 凡讀書先整頓几案, 令潔淨端正, 頓放書冊, 正體緩讀, 字字分明, 不可胡亂牽強暗記, 只要自熟. 古人言讀書有三到, 謂心到眼到口到, 心不在此, 則眼看子細, 心眼既不專一, 卻漫浪誦讀, 決不能記, 記亦不能久也, 三到之中, 心到最重, 心既到矣, 眼口豈不到乎. 讀書不可急迫, 不可寬緩, 解釋文字, 不可牽強, 不可泛過, 惟宜量力致專.”

## ⑥ 일용사의(日用事宜)[일상생활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

낙육제 안에서 유숙(留宿)하는 자는 반드시 일찍 일어나야 하며, 벌렁 눕거나 곤히 잠들어서 날 저물도록 미치게 해서 안 된다. 침구를 정리하여 포개두고, 재직(齋直)이로 하여금 방과 마루를 물로 닦고 소제하게 한다.

식사 때에 재직이가 북을 쳐서 울리면[鳴鼓] 나이순으로 앉고, 반상(盤床)을 진배(進排)하면 일시에 숟가락을 들며, 식사를 마치면 걷어낸다. 저녁에도 그와 같이 한다.

의용(儀容)은 삼가지 앓을 수 없다. 앓을 때는 반드시 허리 곧게하여 몸을 바로 잡고, 갈 때는 반드시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 가며, 읊(揖)을 할 때는 반드시 양쪽 손은 둥그런 모양새로 하여 몸을 굽히고, 절을 할 때는 반드시 머리를 숙여 공근히 한다.

교제함에 있어서는 단지 뜻과 행실과 학업이 어떠한지 관찰해야 한다. 벼으로 삼으면 공경해야 하고, 끼어들거나 능만[업신여김]하며 싸움질하고 꾸짖어 욕하는 사람은 안 된다. 벼들 중에서 과실 있으면 마땅히 계도하여 의롭지 못한 일에 빠지지 말게 한다. 내가 허물이 있어서 봉우가 책망하면 마땅히 두려워하면서 청납하여 바로 고치고 분변하지 않는다.

남들의 아름다운 행실을 보거나 착한 말을 들으면 마땅히 마음에 기어 해서 잊지 않고 그것을 본받고, 좋은 문자를 보면 마땅히 기록해서 익히 보고 그것을 본받는다.

한 집안 식구 밖의 사람은 만나지 말며 서리(胥吏)나 창기(娼妓) 같은 사람을 더욱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sup>28)</sup>

28) 앞의 책, 「日用事宜」, “凡齋中留宿者, 必早起, 不可偃臥困睡, 以及日晏, 整疊寢具, 令齋直灑掃室堂, 食時齋直鳴鼓, 序齒坐, 進排盤床, 一時舉匙, 食畢撤出, 夕亦如之. 儀容不可不謹, 凡坐必定身直腰, 凡行必緩步徐行, 凡揖必圓拱屈身, 凡拜必俯首恭謹. 交際只觀其志行學業, 友而敬之, 不可有挾凌慢爭閤詬罵, 朋儕中如有過失, 當開導, 勿使陷於不義, 己之有過, 朋友責之, 則當瞿然聽納, 卽改毋辨. 凡看人美行, 聽人善言, 當心記不忘, 思以效之, 好文字當寫錄熟看, 思以效之. 凡外人不須交接, 如胥吏娼妓, 尤不可近.”

⑦ 시벌(施罰)[벌칙 규정]

제생에게 과실이 있으면 공령(功令)이 재직에게 복을 쳐 올리도록 명하여 개좌(開坐)한 뒤에 여러 벗과 상의하여 벌을 준다.

상벌(上罰)은 출재(黜齋)[재사에서 내침]하고, 중벌(中罰)은 출좌(黜坐)하며, 하벌(下罰)은 면책을 한다. 만약 큰 과실이 있으면 사사로이 벌을 주지 않아야 하고, 혹 벌을 받고도 즐겨 듣지 않으면 관장(官長)에게 고하여 처치토록 한다.<sup>29)</sup>

인용한 낙육재 절목을 살펴보면 내용이 매우 상세하다. 이를 요약해본다.

제생을 뽑을 때는 경서 가운데 의의(疑義)로 학식을 관찰하고, 경전과 유가 문자에서 문의(文義)·문난(問難)으로 근태를 살펴며, 시부(詩賦) 등으로 문예를 시험하였다. 그런 후에 제술과 강독으로 30명을 뽑아서 15명씩 학습하였다.

낙육재에는 좌재·우재를 운영하고, 연장자 1명을 공령(功令)으로 삼아 제생을 감독하였다. 식당에 갈 때는 복을 한 번 쳐서 알렸다. 일이 있을 때도 복을 쳐서 알렸다.

초하루·보름날 회강을 하였는데, 이 때 관찰사가 참석하여 정좌하면 제생이 읍례를 행하였다. 제생이 강독할 때는 단정히 앉아서 조용히 읽는데, 구절을 분명히 하고 성음(聲音)은 창량이 하며, 질문에 잘 응대토록 하였다.

제생 간에는 학문을 도와야 하고, 제술할 때는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하며, 문체는 순정·아건하도록 힘쓰고, 불경하거나 허탄한 고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책은 읽어야 할 것과 읽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고, 독서할 때는 단정히 앉아서 읽되, 글자마다 분명히 하고 억지로 암기하거나 해석을 해서는 안되며,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책을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

29) 앞의 책, 「施罰」, “凡諸生有過失, 功令命齋直, 鳴鼓開坐, 與諸友相議施罰. 上罰黜齋, 中罰黜坐, 下罰面責, 若有大過, 不可私自施罰, 或不肯受罰者, 告于官長處置.”

일상생활에서는 일찍 일어나서 침구 정리하고, 세수한 후 의관을 정제해야 하며, 식당에 가서는 나이순으로 앉아서 일시에 먹고, 앉을 때는 허리 곧게 하고, 다닐 때는 천천히 걸으며, 읍을 할 때는 공손·공근히 해야 한다고 하였다.

## (2) 학전 규모

『영영사례(嶺營事例)』<sup>30)</sup>에 의하면 1781년(정조 5) 이전 낙육제의 학전을 살펴볼 수 있는데 논[畓]은 대구를 비롯하여 밀양, 경주, 거제 등지에 있었고, 밭[田]은 밀양, 경주, 칠원 등지에 있었다. 1781년 이전까지 소유하고 있던 낙육제 학전 토지는 다음과 같다.<sup>31)</sup>

〈낙육제 토지 현황〉

구분	소재지	세종(稅種)	세조(稅租) (石)	두락 당 세조 단위(斗) [추정치]	두락(斗落) [추정치]	비고
논	대구	조(租)	112.06	10	168	
논	밀양	"	90.036	10	135	
논	경주	"	21.039	10	31	
논	거제	"	1.05	10	1.5	
소계			225.035		335.5	
밭	밀양	모(牟)	63.05	10	94	
밭	경주	"	9.138	10	15	
밭	칠원	"	8.021	10	12	전(錢) 8.14량(兩) 작모(作牟)
소계			81.059		121	
합계			306.094		456.5	

\* 1섬[石]은 15말[斗]이므로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는 말[斗] 표시이고, 1말은 10되[升]이므로 소수점 이하 3자리 수는 되[升] 표시임

30) 慶尙監營 撰, 『嶺營事例』(필사본, [1841년]),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31) 위 『영영사례』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음.

도표에 보인 7개소 토지는 1730년 경에 조현명 감사가 마련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50년이 흐른 시점의 현황이므로 후임 감사들의 추가 매득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토지 7개소의 면적은 456.5두락(斗落)[마지기]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낙육재 학전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매득하였다. 1782년(정조 6)에 경상감사 조시준(趙時俊)이 대구의 토지 51두락(세조 32섬 1말)을 481량(兩)에 추가로 매득하였고, 1808(순조 8)년에 경상감사 정동관(鄭東觀)이 대구의 토지 68두락(세조 47섬 5말)을 710량에 추가로 매득하였으며, 다시 1809년에는 경상감사 정만석(鄭晩錫)이 대구의 토지 90.5두락(세조 49섬)을 735량에 추가로 매득하여 합 209.5두락을 마련하여 전체 낙육재 토지는 약 666두락을 확보하였다.<sup>32)</sup>

### (3) 운영비

낙육재 토지의 세조(稅租) 중심으로 연간 규모를 살펴보면 대구에서는 벼[租] 112섬 6말(112.4兩)이고, 밀양에서는 벼 90섬 3말 6되와 보리[秬] 63섬 5말(합 153.57兩)이며, 경주에서는 벼 21섬 3말 9되와 보리 9섬 13말 8되(합 31.18兩)이고, 거제에서는 벼 1섬 5말(1.33兩)이며, 칠원에서는 보리 8섬 2말 1되(8.14兩)이다. 벼·보리로 합산하면 306섬 9말 4되가 되고, 이를 전(錢)으로 환산하면 306.62兩이다.<sup>33)</sup>

낙육재 재원은 위 토지에 의한 연간 세조 수입 외에 경상감영의 영고(營庫) 보조금, 노비(奴婢)의 신역(身役)[貢錢], 방채전(放債錢) 및 기타 수입 등이 있었다.

1781년의 연간 세입 내역을 전(錢)으로 살펴보면 ①학전 세조 수입

32) 장인진, 앞의 논문, 「경상감영의 낙육재 교육에 대하여」, 185쪽. 한편 1899년 당시 낙육재 둔토는 '130여 석지기'라고 표기되는데(주 58참조), 확인하기 어렵다.

33) 위 『영영사례』의 1781년 작전례(作錢例)를 보면 곡식을 錢으로 환산할 때, 租[벼] 1섬[石] 또는 秬[보리] 1섬이나 米[쌀] 6말[斗]을 錢 1兩으로 적용하고 있다.

306.62兩, ②감영 보조금[營庫移來] 143.4兩, ③공전(貢錢) 수입[노비 4명] 4.6兩, ④김해 산산창(蒜山倉)의 염리(鹽利) 및 선가(船價) 수입 850兩 ⑤채리 급대전(債利給代錢) 수입 500兩, 방채전(放債錢) 수입 84.22兩, ⑥영고재미(營庫在米)[50石]의 모조(耗條)[손실 보충용 곡식] 8.3兩 등 총 1,897.14兩이었다.<sup>34)</sup>

1781년 지출 비목을 살펴보면 ①인건비(色吏·食母·庫子·冊匠) 55兩, ②주식비(主食費)[儒生15, 色吏1] 220.5兩, ③유생 15명에 대한 운영비 [부식대, 연료비, 지필묵대, 과채(科債) 포함] 1,422.6兩, ④기명가(器皿價) 2.2兩, ⑤지세(地稅)[齋基 結卜價] 2.24兩, ⑥수세기(收稅時) 여비, ⑦상채(床債)[5절일, 40월초과일, 三伏] 105兩, ⑧백일장 및 공도회채 54兩, ⑨토지손실 부담금 0.6兩 등 1,897.14兩이다.<sup>35)</sup>

여기서 재생 개인별 지급 내역을 보면, 재생 1인당 매일 반미(飯米) 2되, 찬가(饌價) 1전, 진유(眞油)·남초(南草)[담배]·채소가(菜蔬價) 1전을 지급하였고, 춘·하절기에 반미와 찬가를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설날·한식·단오·추석·동지 등 5절일에 1량씩, 사월초과일과 삼복에 5전씩 지급하였다.<sup>36)</sup>

이처럼 경상감영에서는 낙육재 교육 예산을 대폭 지원하여 인재 양성에 주력하였음을 알 수 있고, 지출 비목을 통하여 재생을 매우 우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4) 장인진, 앞의 논문, 「경상감영의 낙육재 교육에 대하여」, 186쪽. 전체 1,897.14兩을 말[斗]로 환산하면 약 11,383말이 되고, 현재 쌀 한 말 가격을 20,000원으로 잡아도 227,660,000원이 된다. 당시 세입원이 농업이고 기상조건에 따라 생산량의 증감이 있고 보면 쌀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35) 1807년 낙육재 연간 세입·세출 부분을 살펴보면 그 전에 비하여 운영비가 274.69량 증액되고, 地稅 2.24량과 床債 105량 등이 삭제되었으며, 서책 구입비 30량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규모도 2,040.59량으로 증액되었다. 이는 조시준 감사가 1782년 매득한 학전 51두락의 세조 수입도 한 몫을 했다고 본다.

36) 5절일과 사월초과일, 삼복 등에 지급하던 床債는 1807년에 삭제되었다.

(4) 장서

조현명의 상소로 인하여 1732년(영조 8) 영조가 낙육재에 내린 『대학』, 『심경』, 『근사록』 등 3종의 도서는 낙육재 재청(齋廳)의 벽장(壁藏)[벽에 붙여 만든 장]에 봉안하였다.

이듬해 동래부사로 부임한 정내주(鄭來周)가 낙육재에 도서를 내린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조현명이 경상 감사로 있을 때 낙육재의 일을 아뢰어 상께서 서적을 하사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신은 그때 영남의 고을을 맡고 있으면서 영남의 인사들이 한층 더 스스로 면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질의 서적이 반드시 모든 사람의 이목을 열 수 없는데도 선비의 기풍이 이렇게 크게 변한 것은 윗 사람의 뜻이 유학을 숭상하고 도를 중시하는 데 있음을 알고서 감발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sup>37)</sup>

정내주가 조정에서 도서를 하사한 데 대해, 영남 선비들이 한층 더 스스로 면려하는 풍토가 조성되었고 또한 선비의 기풍이 크게 변할 수 있었다고 긍정하였다.

영조가 내린 책 가운데 『대학』은 현재 실물이 남아 있지 않아서 어떤 판본인지 알 수 없다. 『심경』은 진덕수(眞德秀)가 찬한 『심경부주(心經附註)』의 약칭인데 1672년(현종 13)에 금속활자 무신자(戊申字)로 간행한 것이고, 『근사록』은 주희(朱熹)·여조겸(呂祖謙)이 공편한 『근사록집해(近思錄集解)』의 약칭인데 금속활자 무신자로 간행한 것이다.<sup>38)</sup> 그리고 새로 마련한 사서삼경과 그 언해를 합한 80권은 재(齋)[좌재 혹은 우재]에 두었다.<sup>39)</sup>

37) 『승정원일기』, 영조 11년을묘(1735) 6월 20일 조.

38) 대구시립도서관 편, 『藏書目錄；日本語圖書·漢古籍 및 西洋圖書 篇』, 1977에 『심경부주』 1책(권3-4), 『근사록집해』 3책(권3-14) 등이 소장되어 있었다. 당시 필자가 자료를 직접 확인하였다.

영조 8년(1732년) 3월은 조현명이 경상감사에 재임 중인데 황정(黃暹)이 진수당(進修堂)에서 영조께 진언한 내용을 본다.

지방은 왕의 교화로부터 차츰 멀어지고, 학교에 관한 정사는 수령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므로, 선비들의 풍습이 점차 지리멸렬하게 되었습니다. 영남은 옛날의 이른바 추로지향(鄒魯之鄉)인데 최근 수십 년 동안 선비들의 기풍이 건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 조현명이 부임한 뒤에는 선비들의 기풍을 흥기시키는 일을 우선으로 하여 낙육재를 건립하고는 선비들을 선발하여 입학시키고 전답을 사 주어 교육을 해 나갈 방도를 있게 하었다고 합니다.<sup>40)</sup>

영남은 추로지향<sup>41)</sup>으로 이름 난 곳이었으나 선비들의 기풍이 수십 년 간 해이하였던 것이다. 조현명 경상감사가 낙육재를 건립하고 학전(學田)을 마련하여 해결 방도를 강구하는 등 크게 노력하여 사풍을 흥기시켰다고 하였다. 교육정책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3) 윤광안

낙육재를 증건하고 시설을 확장하며 도서를 확충한 사람은 1806년 2월부터 1808년에 1월까지 재임한 윤광안(尹光顔, 1757-1815) 감사이다.

그가 재임하던 1806년 12월 3일 경상감영의 선화당을 포함한 영사(營舍) 184칸이 일시에 화재를 입었다.<sup>42)</sup> 이듬해 1807년 영사를 증건하였는

39) 위 『영영사례』, “御賜書冊, 奉安于齋廳壁藏中, 新備四書三經具諺解八十卷, 置齋中.” 한편 1737년에는 閔應洙 감사에 의해 『詩藪』 1질이 낙육재에 기증되기도 하였다.

40) 『승정원일기』, 영조 8년 임자(1732) 3월 23일 조.

41) 공자와 맹자가 태어난 곳으로, 학문과 예절이 흥성한 지역을 이른다.

42) 『일성록』, 순조 6년 병인(1806) 12월 8일(신사) 조를 보면 이날 澄清閣, 宣化堂, 如水閣, 內衙, 燕超堂, 좌우의 翼廊, 工庫 등 184칸 모두가 불에 났다고 하였다.

데, 그해 10월에 낙육재를 중수하고 건물을 새롭게 증축하였다.<sup>43)</sup> 낙육재에서 부족한 것을 돕고자 별도로 관선당(觀善堂)을 지었는데,<sup>44)</sup> 관선당은 낙육재 남쪽에 신축한 3칸 집이었다. 관선(觀善)은 「학기(學記)」의 ‘서로 보고 잘 하는 것(相觀而善之)’을 취한 것이다.<sup>45)</sup> ‘낙육’이 가르치는 뜻이라면 ‘관선’은 배우는 사람의 뜻이다.

또 장서각을 새로 마련하였다. 최남복의 「낙육재장서각명(樂育齋藏書閣銘)」을 본다.

성상 6년(1806) 봄에 파평인 윤광안 공이 방백으로 나와서 백성 사랑하고 선비 예우하며 정치 교화를 크게 행하였다. 다음해 정묘(1807)에 낙육재를 중수하고, 도내 생원·진사·유생 가운데서 지위와 명망 있는 자를 예로 맞이하고 시험으로 선출, 보충하여 과제·고문·강의를 하고 아울러 풍원고사(豊原故事)[조현명 흥학책]를 행하니, 더욱 빛이 났다. 이에 낙육재의 남쪽에 관선당 3칸을 세우고 북쪽에 시령을 만든 1칸의 각(閣)을 마련하여 널리 보존한 것은 사서·육경·노자서·고금사·이락관민·성리군서 등이고, 기문과 벽설은 못 미쳤다.<sup>46)</sup>

기문을 보면 장서각(藏書閣)은 관선당 북쪽에 시령을 만든 1칸의 각

43) 申緯, 『石泉遺稿』, 卷3, 「資憲大夫慶尙道觀察使尹公[光顏]墓誌銘」, “重修樂育齋, 置藏書閣, 充四部諸書, 招延部下士, 試經義製述, 超等者選入.” 한편 1807년 당시 낙육재에는 학습을 돕고자 별도로 지은 觀善堂과 서고인 藏書閣, 기숙사인 左齋·右齋 외에 食堂, 庫子廳, 齋庫, 色吏房 등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4) 1807년의 「觀善堂記」는 2편이 있는데 孫綸九(1766-1837)와 李楨輔(1766-1846)가 지었다.

45) 孫綸九, 『省齋文集』(목판본), 권2, 「觀善堂記」, “又建屋[관선당], 屋之東隅北架爲閣, 廣印經史子集 凡幾百卷以儲之, 而閣曰藏書, 南向而爲室二間堂一間, 總名之曰觀善堂, 取學記相觀而善之義也.”

46) 崔南復, 『陶菴先生文集』(목판본), 권6, 「樂育齋藏書閣銘」, “聖上六年春, 坡平尹公光顏出爲方伯, 愛民禮士政化大行, 翌年丁卯重修樂育齋, 禮延道內生進儒生中, 有地望者, 取試以充選, 科製也古文也講義也, 并行之於豊原故事, 尤有光焉. 乃於本齋之南, 立觀善堂三間, 北架爲一間閣, 廣畜四子六經柱下古今史伊洛關閩性理羣書, 而奇文僻說不及焉.”

(閣)을 마련한 것이라 하였다. 관선당이 남향인데 관선당의 동쪽 모퉁이에 시령을 만든 각이라 하였으니<sup>47)</sup> 관선당에 딸린 작은 누각인 듯하다. 그 위에 ‘藏書閣’이라는 편액을 걸었다. 이 곳에 임금이 내린 3종의 책과 새로 비치한 각 질의 책을 보존하였다.

인용문에서 윤광안의 애민과 선비를 우대하는 의식 및 낙육재를 다시 흥기시키는데 크게 노력했음을 볼 수 있다.

윤광안은 1807년에는 도서구입비 30량을 새롭게 책정하여 많은 도서를 확충하였다.<sup>48)</sup> 1807년에 작성된 『낙육재서책목록(樂育齋書冊目錄)』<sup>49)</sup>을 살펴보면 이 때 구입한 도서를 ‘丁卯新備’라는 도장을 찍어서 구분하였는데, 실제로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에 ‘정묘신비’가 찍혀 있는 도서가 201책이고 그 가운데 일부는 낙질본이다. 이 책을 포함하여 1807년 장서각에 보존된 장서는 585책이고, 1857년에는 1,397책으로 늘어났다.<sup>50)</sup> 그 후에도 계속 증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낙육재가 철폐된 후 도서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많이 유실되어 1978년 조사 당시에 764책이 남아 있었다.<sup>51)</sup> 낙육재 도서는 ‘樂育齋’라는 장서인을 찍었다.

윤광안은 1807년 10월 낙육재를 증건한 기념으로 경상도 명유로 이름난 정종로(鄭宗魯), 강필효(姜必孝), 이정규(李鼎揆), 류치명(柳致明) 등 40여 명을 낙육재에 초청하여 향음주례를 행하였다.<sup>52)</sup> 행사를 위한 『향음훈사』<sup>53)</sup>도 낙육재에서 편성하였다.

47) 孫綸九, 앞의 책, 권2, 『觀善堂記』, “又建屋[관선당] 屋之東隅北架爲閣.”

48) 위 『영영사례』, 「丁卯(1807) 尹等內 追節目」, “三十兩, 本齋書冊新備, 每年下.”

49) 이 절첩본은 윤광안 관찰사가 1807년에 편성한 것이다.

50) 남권희, 「경상감영 간행본과 낙육재 소장서책 분석」,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경상감영의 종합적 연구』, 2004, 303-305쪽.

51) 장인진, 앞의 논문, 「영남 낙육재 고」, 111-114쪽의 ‘낙육재도서목록’에 의하면 1978년 당시 대구시립도서관에는 낙육재 도서 764책을 소장하고 있었다.

52) 장인진, 앞의 논문, 「경상감영 낙육재의 교육문화와 齋生」, 125쪽.

53) 樂育齋 編, 『鄉飲訓辭』(필사본, 1807) 1책, 대구시립중앙도서관 소장. 이 책의 내용을 보면 司正揚鱣訓辭, 讀法, 工歌, 鹿鳴三章, 四牡五章, 皇皇者華五章, 笙詩, 間歌, 魚麗六章, 南有嘉魚四章, 笙崇丘, 南山有臺五章, 笙由儀, 合樂, 關雎三章, 葛覃三章, 卷耳四章 鶴巢

그 당시 빈(賓)으로 초청받은 정종로의 글을 본다.

금상[순조] 7년 정묘년(1807) 겨울 10월에 방백 윤공이 장차 달성부(達城府)[현 대구]에서 향음례를 행하려 할 때 외람되게도 나를 빈(賓)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미 서신으로 초청함이 매우 정성스러웠고, 또 보좌관을 보내 뜻을 전하였으며, 게다가 주목(主牧)이 몸소 나에게 오도록 하여 나아오기를 권하며, “이 예를 행함에는 오직 장자(長者)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 세상 장자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니, 대개 끝내 가만 놔두지 않음이 이와 같았다. … 마침내 이달 6일에 낙육재에서 습의(習儀)하고, 그 다음날 관덕당에서 설행함에, 침랑 강필효(姜必孝)를 개(介)로 삼고, 시랑 이정규(李鼎揆), 지현 김기찬(金驥燦), 교리 이태순(李泰淳)을 삼준(三遵)으로 삼고, 만각 이동급(李東汲), 상사 정동필(鄭東弼), 상사 강영(姜泳)을 삼빈(三賓)으로 삼고, 전중 이병운(李秉運)을 도집례로 삼았다. 나머지 찬인(贊引), 독법(讀法), 악정(樂正), 사정(司正) 등과 같은 여러 집사도 또한 각각 선발된 인사로 정해서 임명하였다.<sup>54)</sup>

윤광안이 영남 명유들에게 정성과 예를 다해 초청하여 향음주례를 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행사 후에는 재생들과 강론을 행하였으니, 학풍을 장려하고자 함이었다. 이날 행사에 운집한 사람들이 1,000여 명이라 하였으니<sup>55)</sup> 행사가 얼마나 성대하였던가를 짐작케 한다.

윤광안은 1808년 임기를 마치고 조정에 들어가 임금께 진언하여 1808년 2월에 도서를 내사(內賜)받게 되었다. 『순조실록』을 본다.

전 경상감사 윤광안을 소견하였다. 윤광안이 아뢰기를, “영남의 감영에는 낙육재가 있어서 도내의 재주가 뛰어난 선비를 선발하여 이곳에 거처하면서

三章, 采繁三章, 采蘋三章 등의 순이다.

54) 鄭宗魯, 『立齋先生文集』, 권4, 詩, 「達城鄉飲禮後 賦其事 奉贈尹方伯光顏並序」.

55) 申紳, 위 「慶尙道觀察使尹公[光顏]墓誌銘」, “仍行鄉飲酒禮, 會者蓋千人, 揖讓觀禮, 莫不感歎.”

학업을 익히게 하고 있습니다. 영묘(英廟) 임자년에 고(故) 상신(相臣) 조현명이 학규를 정하여 진소하면서 이를 바치고, 책을 반사할 것을 청하자, 특별히 『대학』·『근사록』·『심경』 등 세 책을 내려 주셨으므로, 전하여 성대한 일로 삼고 있습니다. 신이 각봉장(閣奉藏)[장서각]을 건립하였는데, 이제 만약 내부(內府)의 서책을 발급(頒給)하신다면, 한 지방의 선비들이 반드시 용동(聳動)하여 힘쓸 것입니다.’하니, 『대학유의(大學類義)』를 내려 주도록 명하였다.<sup>56)</sup>

영조 때 어사본(御賜本) 3종이 내려진 이후로 이번에 다시 『어정대학유의(御定大學類義)』 1질<sup>57)</sup>을 하사받은 것은 낙육재의 위상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에 쌓은 교육적 성과를 조정으로부터 크게 인정받았다고 하겠다.

#### 4) 엄세영

낙육재를 중수(重修)하고 정원을 대폭 늘려서 낙육재를 개방한 사람은 1896년 9월부터 1898년에 8월까지 재임한 엄세영(嚴世永, 1831-1900) 경상북도 관찰사이다.

낙육재는 창건한 이래 남문 밖에 있었다. 1896년 8월 경상도가 남북도로 분리될 때 낙육재 재산도 분할되어 진주에 1899년 낙육재가 설립된 바 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본다.

56) 『조선왕조실록』, 순조 8년(1808) 2월 7일(계유) 조.

57) 『어정대학유의』는 현재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앞표지 뒷면에 “上之八年戊辰[1808]二月初十日 內賜樂育齋大學類義一件, 檢校直閣 臣 洪[手決]”이란 內賜記가 있다.

경상도 락육지[樂育齋]의 둔토는 본릭 一百三十여석직이가 되는데 그 쇼출조로 이왕에 선비를 기르더니 히도를 남북도로 논흔 후에 북도의 쇼관 둔토가 八十여석직인 고로 남도 선비들이 학부에 호쇼 햏야 밀양군 싸에 있는 둔토 四十여석직이를 남도에 부컷더니 쏘 북도 선비들이 학부에 호쇼 햏는 고로 二十七日에 학부에서 대신은 순반이 되고 학무 국장은 판스가 되야 남 북도 선비들을 디질 지관 식혀 그 둔토의 만코 적은것을 헤아려서 균평히 논하 주엇다더라.<sup>58)</sup>

이처럼 남북도 유생 간에 낙육재 학전 문제로 논란이 있었으나 학부에서 재판을 하여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남북도가 분리되기 이전인 1888년에 낙육재가 남성(南城) 안으로 이사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일부 기능 또는 시설을 옮긴 것인지 알 수 없다.<sup>59)</sup>

그 후 엄세영이 1896년 감사로 부임한 그 첫해에 낙육재를 중수(重修)하였다. 당시 이기(李沂)가 지은 「낙육재중수기(樂育齋重修記)」를 본다.

대구의 낙육재는 옛날 주(州)에 설립한 학교와 같은 것이다. 해마다 군현(郡縣)의 학생 15명을 선발하여 본재(本齋)에서 거처하게 하고 그 다반(茶飯) 등 비용은 관청에서 지불하였다. 그리고 영남의 지명인사들도 이 곳 출신이 많았다. 고종 31년인 갑오년(1894) 정부에서 제도를 개혁할 때 학교의 과목(科目)도 모두 개혁하므로 사람들은 모두 불안해하며 그 개혁에 따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병신년(1896)에 지금 관찰사로 있는 엄공(嚴公)이 업무를 본 지 3일 만에 낙육재로 와서 제생들과 술을 마시다가 “내가 제생들과 담변(談辨)을 벌이겠습니다. 법(法)이라는 것은 신구가 없고 학문이란 것은 고금이 없습니다. 오직 그 시대에 알맞는 선택을 하여 대중지

58) 《독립신문》, 1899년 9월 30일, 4면, 「락육지의 둔토」.

59) 徐錫台 편, 『大邱邑誌』(연활자본, 1924), 「樂育齋」 조에 “高宗戊子(1888), 移舍於南城內.”라 하였는데, 낙육재생 金永銖가 「樂育齋記」를 지었다. 「移設告成文」에는 앞에 將廳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낙육재 위치에 대해서는 1899년 『대구부읍지』(규장각 소장본, 10838) 지도에 남문 밖에 표기되어 있고, 1907년 『대구부읍지』(규장각 소장본, 10810)에서도 남문 밖에 소재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정(對中至正)한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 이에 해마다 선발한 정원 이외에 입학을 원하는 사람은 입학을 허락하여 모두 60여 명을 선발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3번(番)으로 나누어 이복래(李福來)·양재기(楊在淇) 등으로 하여금 그 일을 맡게 하고, 낙육재의 동·서실(東西室)을 개조하여 기울어진 부분을 바로잡고 무너진 곳은 수축하였다. 그리고 그 문(門)과 마루도 제도(制度)에 의하여 개조하였다. 이렇게 기공된 지 10여일 만에 공사를 마쳤다.<sup>60)</sup>

갑오경장으로 학제가 개혁되어 선비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 엄세영 감사가 제생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고, 낙육재의 동·서실을 개조하여 기울어진 부분을 바로잡고 무너진 곳은 수축하였다. 그리고 그 문과 마루도 제도에 의하여 개조한 후 당초 15명 정원에서 입학을 원하는 자를 모두 허락하고, 전체 60여 명을 선발하여 3번으로 나누어서 학습한다고 하였다.

엄세영은 1898년 2월에 낙육재 관선당에서 강을 하면서 읍례를 행하였는데 그 내용이 『정음강론록』에 실려 있다.<sup>61)</sup> 이를 중심으로 대강을 살펴본다.

읍례는 낙육재 설립 당시의 「낙육재절목」 ‘강규(講規)’에 규정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예절이다. 행사 당일에 사석(師席)[관찰사], 부사석(副師席)[대구군수], 직월(直月)[주사] 등이 자리에 앉게 되면 낙육재 제생(齋生) 중에서 뽑은 동반수(東班首), 서반수(西班首), 집례(執禮), 독법(讀法), 동조사(東曹司), 서조사(西曹司) 각 1인과 제생(諸生) 11인이 함께 진퇴(進退)·승강(升降)하면서 읍례와 배례를 행하였다.

입규(立規)를 보면 동반수 이하 제생이 행사할 때 각 소임을 맡은 자가 예의에 벗어나게 되면 허물을 고하게 하여 벌칙으로 냉수 한 그릇을 먹게

60) 李沂, 『국역海鶴遺書』, 권8, 문록(文錄) 6, 「樂育齋重修記」(丙申)《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사료총서》

61) 樂育齋 編, 『庭揖講論錄』(필사본, 1898년) 1책. 내용을 보면 1898년의 金寧濟 序文, 庭揖禮圖, 立規, 執禮笏記, 小學題辭, 大學首章, 中庸首章, 呂氏鄉約, 朱子白鹿洞規, 論語九思, 禮記九容, 顏氏四勿, 曾子一貫, 行禮時序位, 講目問答, 詩, 1898년의 徐贊奎 跋文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하였다. 2월의 추울 때였다. 소임 간에 연대 책임을 지게 하여 행사를 엄격히 한 것이다.

강을 할 때에는 조사가 사석 앞에 나아가 개강을 청한 후, 동반수 이하 제생 17인이 차례로 사석 앞에서 1편씩 헌강(獻講)을 하는데, 헌강 과목은 사서삼경 가운데 뽑은 것으로, 제생이 질문하면 사석이 답변하는 형식이다. 관찰사[사석]는 제생의 강에 대하여 고강(考講)한 후 우등한 자에게는 상으로 관(冠)을 내렸다. 이어서 참석한 엄세영 관찰사 이하 관원들과 제생이 시 1편씩 지었다.<sup>62)</sup>

이러한 의식을 통하여 관찰사와 제생 간에 예로써 공경함은 물론, 관찰사가 제생의 학습을 점검하여 학문적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한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5) 조기하·이헌영

경상북도 관찰사 조기하(趙夔夏)는 1902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6개월간 재임하였고, 이헌영(李鑣永)은 1902년 7월부터 1903년 7월까지 1년간 재임하였다. 이 때는 낙육재가 일제의 입김으로 철퇴를 목전에 둔 시기였다.

두 사람은 낙육재의 ‘흥학교(興學校) 육인재(育人才)’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낙육재생 김영수(金永銖)가 지은 「관선당수습기(觀善堂修葺記)」를 본다.

관선당은 낙육재의 익실이다. 당에는 장서각이 있고, 장서각에는 영조 때 내사받은 『심경』·『근사록』이 있고, 또 백가 경적이 있다. 옛날에 윤광안 상공이 차례로 창립한 후로 여러 번 풍우로 무너짐을 겪게 되자 조석으로 박두

62) 제생의 시를 살펴보면 대개 小序가 있는데, 내용은 엄세영 관찰사를 칭송한 것이다.

하여 수리해야 하는데 많은 선비들의 장소에 사람 없어 방황하며 탄식한 지가 여러 해 되었다. 임인년(1902) 봄에 소운 조기하(趙夔夏) 공이 이 곳 관찰사가 되어 내려온 지 사흘 만에 낙육재에 임하여 제생을 불러서 술을 내리고 이 당에 올라가 한 번 보고난 후에 퇴락한 것을 걱정하여 특별히 연름(捐廩) 200백금을 본 재에 맡겼다.<sup>63)</sup>

1902년 2월 조기하 관찰사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낙육재를 방문하여 특별히 연름 200금을 맡겨 관선당을 수증하였다. 인재 양성에 관심이 높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조기하 관찰사는 부임한지 6개월 만에 물러나고 후임에 이현영이 경상북도 관찰사가 되었다. 그는 장서각을 수리하는데 금전을 내어 협력하였다. 낙육재생 채무식(蔡武植)의 「장서각수증기(藏書閣修葺記)」를 본다.

장서각은 고 윤광안 상공이 창건한 건물이다. 내사본인 『심경』·『근사록』 및 경서와 역사서 수천여권이 쌓여 있었다. 세월이 오래되어 무너져 보존하기가 거의 어려우니 간절하게도 많은 선비들이 함께 서글퍼하는 바였다. 임인년(1902) 가을 조기하 공의 연름으로 수증하여 학자들이 학업 닦는 곳으로 충분하였는데. 뜻밖에도 이 해에 겨울비와 큰 눈이 내려 늙은 왜나무가 넘어져서 갈라지니, 거의 날짜만 보내면서 걱정하였고, 해를 넘겨도 미처 하지 못하니 힘이 미약한 근심을 면치 못하였다. 우리 도가 외롭지 않음이 얼마나 다행이던가. 우리 동연 이현영 상공이 두 번 영남의 감사로 와서 풍화를 도탑게 하고 학교를 일으키는 것을 자기의 소임으로 여겼다. 공무의 여가를 틈타 낙육재에 임하여 제생을 불러서 가르치며 특별히 연름 500금은 해읍(該邑)에 재공을 돕고 또 300금은 본 재에 맡겨서 연묵(硯墨)의 자금으로 쓰게 하며, 200금은 수증의 비용으로 내놓아 이한춘과 최근술에게 책임을 맡겼고 나는 일을 감독하여 몇 달 되지 않아서 마쳤다.<sup>64)</sup>

63) 金永鈔, 『晚山文集』(석판본), 권3, 「觀善堂修葺記」, “觀善堂者, 樂育齋之翼室也, 堂有藏書閣, 閣有內賜心近書, 又百家經籍在焉. 昔尹相公光顔次第創立之後, 屢經風雨頽漏, 迫在朝夕而嗣葺者, 無人多土之所, 彷徨而咨嗟者有年矣. 壬寅春, 小雲趙公夔夏按節是省, 下車三日, 莅于齋招諸生而賜之酒, 登斯堂一覽畢, 以頽廢爲憂, 特捐廩二百金, 付諸本齋.”

수즙[수리]을 한 장서각이 당년 겨울에 대설로 인하여 늪은 왜나무가 넘어져 갈라지니 난감하기 그지없었다. 그해 가을에 이현영이 두 번째 영남 감사로 부임하여 1903년에 특별히 1,000금을 인재를 양성하는 비용으로 내어놓았는데, 그 중 300백금은 낙육재 연묵비(研墨費)로 쓰도록 하고, 200백금을 장서각을 수즙하는 비용으로 쓰게 하여 새롭게 고쳤다는 내용이다. 이는 이현영 감사가 학교를 흥기시키고자한 의지를 보인데서 비롯한 것이었다.

건물과 관련하여 ‘관선당수즙기’를 보면 관선당은 1902년 조기하가 수즙했다고 하였는데, 이 기문에서는 조기하가 장서각을 수즙한 것으로 되어 있다.<sup>65)</sup> 사실이 겹치지만 본래 장서각은 관선당을 지을 때 딸린 건물 이기에 그러하다.<sup>66)</sup>

낙육재는 전·후 관찰사의 각별한 배려에 힘입어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귀의(歸依)할 바가 있게 하였는데, 불행하게도 1904년 2월에 일본사람이 낙육재를 점거하여<sup>67)</sup> 유생들을 축송(逐送)하는<sup>68)</sup> 등 수난을 맞게 되니, 분개한 재생들이 장서각 도서를 대구 연계재(蓮桂齋)에 옮겼다가 몇 달 되지 않아서 대구향교에 옮기게 되었다.

64) 蔡武植, 『訥軒文集』(석판본), 권3, 「藏書閣修葺記」, “藏書閣故尹相公光顔之所勸建也, 儲內賜心近及經史數千餘冊(弓+二), 年久頽圯, 幾乎難保, 徒切多士之興嗟矣. 壬寅秋趙公慶夏, 捐廩修葺, 足以爲學者肄業之所, 不意是歲冬兩大雪, 老槐顛剝, 殆有時日之慮, 而跨歲未遑者, 不免有力綿之歎也. 何幸吾道不孤, 我東蓮李相公李鑄永, 再鎮南服, 以敦風化興學校爲己任, 公暇蒞于齋招諸生而誨之, 特捐五百金於該邑以補齋供, 又三百金付本齋爲研墨之資, 二百金爲修葺之費, 責李漢春崔坤述不佞監其役, 不幾月工告迄.”

65) 앞의 책, 권3, 「樂育齋稟目」, “壬寅(1902)秋觀察使趙公, 特捐三百金, 修藏書閣. 癸卯(1903)秋, 梅洞李判書公[이현영], 特捐一千金, 以需修葺, 以資硯墨, 以補供億.”

66) 채무식은 기문에서 장서각은 ‘윤광안의 창건 건물’이라 강조했으므로 남문 밖의 건물인 듯하다. 그러나 낙육재가 1888년 남성 안으로 이사한 기록이 있고 보면, 이 건물이 남성 안에 있던 건물인지는 알 수 없다.

67) 채무식, 앞의 「樂育齋稟目」, “不幸昨冬, 本齋爲日人之所占, 世道重可慨也.”

68) 《皇城新聞》, 1904년 2월 13일자에 “日本 鐵道技師 大塚爲名인이 連請府下 在樂育齋許 借나 公廩를 不可私借라 해야 不許하였더니 自意奪入하고 逐送儒生이라 하였더라”하였다.

채무식을 비롯한 일부 재생들이 관찰사에게 낙육재 복설을 건의하여 1904년 10월 25일에 낙육재를 새로 마련했는데, 장소는 객사 앞 동편에 있던 본래의 대구균세소(大邱均稅所)였다.<sup>69)</sup> 그러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2년을 못가서 철폐를 맞게 되었다.

### 3. 인재 선발과 낙육재 동연생

#### 1) 인재 선발

경상도의 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관찰사의 권한이었고, 교육은 낙육재에 서 담당하였다. 낙육재가 설립될 때는 「낙육재절목」에서 밝히고 있듯이 제술 및 강독으로 30명을 뽑았다. 선발된 30명을 양번(兩番)으로 나누어서 정월부터 15명씩 1개월 간격으로 교대하면서 1년간[실제 6개월] 거재하며 학습하는 진퇴법(進退法)을 적용하였다.

『영영사례』의 「낙육재」 조를 보면 “옛날에는 경술(經述)을 시험하였고, 근래에는 과목(科目)[詩賦 등]으로 뽑는데, 매년 봄·가을 사이에 각 읍에 명령하여 인재를 뽑아서 감영에 보고토록 하고, 추천받은 자를 대상으로 백일장을 열어서 15명을 시취(試取)하여 낙육재에 거재토록 하였다.”<sup>70)</sup> 이를 선현승주법(選縣升州法)<sup>71)</sup>이라 한다.

69) 채무식, 앞의 책, 권3, 「樂育齋再稟目」 및 권1, 「十月二十五日 移新于樂育齋紀事」.

70)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편, 『경상감영사례 I』, 경북대학교출판부, 2009, “選土居齋之規, 古試經述, 近取科目[詩賦 疑義 등], 每年春夏間, 令各邑抄選以報, 設白日場, 以詩賦取十五人居齋.”

71) 選縣升州法은 중국의 鄉貢法이다. 조현명, 앞의 책, 권19, 「樂育齋上樞文」에 “選縣升州, 倣漢家鄉貢土之法.”이라 하였다.

『영영사례』의 「선사(選士)」 조에서는 “대읍(大邑)은 5명, 중읍(中邑)은 3명, 소읍(小邑)은 2명씩 뽑아서 감영에 보고토록 하였다.<sup>72)</sup> 경상도 71개 고을 중 대읍 21, 중읍 17, 소읍 33개로 추정할 때 원칙을 지켰다면 약 220명이 감영에 추천된 것으로 보인다. 1800년 경부터는 이러한 구별을 하지 않고 군현의 보고에 따라 시(詩)와 부(賦)를 반반으로 섞어서 15명을 시취한 후 낙육재에 거접토록 하였다.”<sup>73)</sup>

1752년(영조 28) 2월 27일의 『영영일기(嶺營日記)』를 보면 경상감영에서 낙육재생을 선발하는 전후의 과정을 알 수 있다.

관풍각(觀風閣)에 앉아 공사소지(公事所志)를 결재하였다. 식사 후에 선화당(宣化堂)에 앉아 있으니 낙육재 백일장의 참시관과 판관[대구판관]이 좌기례(坐起禮)를 행한 뒤에 그대로 들어와서 배알하는지라 함께 앉아 여러 유생들의 정읍례(庭揖禮)를 받았다. 저녁 먹은 뒤에 고시(考試)를 마치고 백일장을 끝냈다. 합격자를 발표한 뒤에 합격한 유생들과 함께 낙육재에서 종고악대(鐘鼓樂隊)를 불러서 풍악을 크게 연주하고, 기생(妓生)으로 하여금 노래하고 춤추게 하였다. 술을 세 순배 돌리고 등급에 따라 유생들에게 상(賞)을 내리니 함께 절하고 물러났다.<sup>74)</sup>

관풍각에 앉아 있던 관찰사는 조재호(趙載浩)이다. 관찰사가 선발 시험에 앞서 유생들의 정읍례를 받았던 사실, 관찰사와 합격한 유생들이 함께 낙육재에서 풍악을 크게 연주한 사실, 시험의 등급에 따라 유생들에게 상(賞)을 내린 사실 등이 확인된다.

이삼현(李參鉉, 1807-?) 감사의 1865년 4월 20일자 기록을 보면 낙육재생을 선발할 때의 과정을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다.

72)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편, 앞의 책, 66쪽, “選士, 大邑五人中邑三人小邑二人式抄報矣.”

73) 앞의 책, “近年則無大中小區別, 而隨所報, 試取詩賦參半, 合取十五人, 居接樂育齋.” 이 때의 근년은 내용으로 보아 1800년경이라 하겠다.

74) 영남문화연구원 편, 『嶺營日記嶺營狀啓啓錄』.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4, 114쪽.

선사(選士) 백일장 및 유생(儒生) 백일장을 선화당에서 개설하였다. 시관은 선산부사 김병우(金炳愚), 의성현령 조명하(趙命夏), 하양현감 유치운(柳致潤), 군위현감 서정보(徐珽輔), 대구관관 정헌조(鄭憲朝) 등이다. 출방(出榜)을 한 후 여기에 든 자를 부르고, 다음 날 교생이 겨루어 선사(選士)에 들었다고 하면 곧 낙육제에서 거접(居接)을 하는데, 각 읍에서 그 고을의 유생 가운데 숨은 능력 지닌 자를 뽑아서 감영에 보고하면, 백일장으로 선발하여 비로소 1년간 거접을 하였다. 정수는 무릇 15인인데 금번에 우수한 자 40인을 뽑았고, 징청각(澄清閣)[관찰사]에서 5차례의 면시(面試)를 치러 비로소 15인을 뽑아 거접하게 하였다.<sup>75)</sup>

시관으로 선산부사를 포함하여 의성현령, 대구관관 등이 참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선발 인원과 시험에 대해서는 시관들이 뽑아둔 40명을 대상으로 관찰사가 다섯 차례의 면시(面試)를 치러서 최종 15명을 선발하여 낙육제에 거재하도록 하였다.

영조 때 경상도 유생 조문식(曹文弼)이 있었다. 그는 낙육제의 선사 시험에 합격을 하였으나 응시할 당시 시폭(試幅)에 쓴 이름자와 선사(選士)를 보고한 이름자가 서로 달라서 낙육제 양사(養士) 명단에서 빠지게 되었다. 1742년경으로 추정된다. 이에 윤봉오(尹鳳五, 1688-1769)가 다음의 시를 지었다.

75) 李參鉉, 『鍾山集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료총서8』, 1958), p.275, “設選士白日場及儒生白日場於宣化堂, 試官則善山府使金炳愚·義城縣令趙命夏·河陽縣監柳致潤·軍威縣監徐珽輔及判官鄭憲朝也. 出榜呼中, 翌日比較儒生選士云者, 卽樂育齋居接, 而自各該邑, 選報邑儒之翹肖, 被選於白日場, 而始爲一年居接, 額數凡十五人, 而今番優取四十人, 面試於澄清閣, 至五次, 始取十五人, 使之居接.”

장인진, 앞의 논문, 「경상감영 낙육제의 교육문화와 齋生」, 131쪽에서 재인용.

隣驢不見借人乘 : 이웃 나귀는 남에게 타도록 빌려준 것을<sup>76)</sup> 못보고  
 禪磬何山飯後鳴 : 선원의 경쇠는 어느 산에서 공양을 들고 울리는가<sup>77)</sup>  
 可笑齋監文綱密 : 가소롭게도 재감(齋監)은 글 살핌이 빈틈 없다고 하나  
 不知劉向是更生 : 유향(劉向)이 갱생(更生)<sup>78)</sup>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네.<sup>79)</sup>

이 시를 사람을 시켜서 경상감사에게 전하니, 감사가 비로소 조문식을 낙육재에 거재하도록 허락을 하였다.<sup>80)</sup> 윤봉오는 대사헌·우참찬을 역임한 노론계 문신인데, 1740년부터 1744년까지 영천군수(永川郡守)로 재직하였다. 낙육재 선발 시험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로 미루어 당시 영남에서 낙육재의 위상이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낙육재에서 편성한 자료는 6책 전해진다. 『재록(齋錄)』(1872~1886년) 1책, 『시부(詩賦)[재록]』(1902~1905년) 1책, 『강목강어(綱目講語)』(1895년) 2책, 『정읍강론록(庭揖講論錄)』(1898년) 1책, 『향음훈사(鄉飲訓辭)』(1807년) 1책 등이다. 『재록』은 선발·거재자 명부이고, 『강목강어』는 강독 류이며, 『정읍강론록』은 정읍례 행사와 강독, 제술 등이 들어 있고, 『향음훈사』는 향음주례의 의례를 기록한 것이다. 이 책은 낙육재의 실증 자료이다. 자료의 인명을 중심으로 낙육재 연도별 선발·거재자 현황을 살펴본다.

76) 『論語』, 「衛靈公」에서 孔子가 “그래도 예전에는 말을 가진 사람이 남에게 타도록 빌려주곤 하였는데, 지금은 그런 미풍이 없어지고 말았다(吾猶及有馬者借人乘之, 今亡矣夫).”라 하였다.

77) 唐나라의 王播가 젊을 때 가난하여 揚州의 惠照寺에 가서 齋食을 얻어먹고 지냈는데, 중들이 왕파를 싫어하여 밥을 먹고 난 뒤에야 鐘을 쳤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78) 劉向은 漢나라 學者인데, 그의 本名은 更生이다.

79) 장인진, 앞의 논문, 「경상감영 낙육재의 교육과 문화 소통」, 257쪽, 재인용.

80) 尹鳳五, 『石門集』(목판본), 卷3, 15頁, 「聞曹生文槆, 以試幅名字, 與選士所報不同, 見拔於樂育齋養士之中, 又無騎, 轉寄山寺寄此一絕」. 이 시의 말미에 “有人, 送傳此詩於巡使, 始許入齋云.”이라는 註가 있다.

〈낙육재 연도별 선발·거재자 현황〉

(선발/거재)

年度別	文獻別 選拔科目	齋錄				綱目 講語	庭揖 講論錄	合 計	備 考	
		詩賦			論表					小 計
		詩	賦	未區分						
壬申(1872)11월 (癸酉正月)				15 [15]		15 [15]				
癸酉(1873)11월 甲戌正月				15 15		15 15		이원민 불참 / 김성린 대체		
[甲戌(1874)選] 乙亥正月		11	9			20		15명단 무 / 5명 추가		
[乙亥(1875)選] 丙子正月		6	5			11		15명단 무 / 4명 불참		
丁丑(1877)3월 (戊寅正月)				15 [15]		15 [15]				
戊寅(1878)11월 (己卯正月)		8 [8]	7 [7]			15 [15]				
己卯(1879)選 庚辰正月		7 7	8 8			15 15				
[庚辰(1880)選] 辛巳正月						15		/ 因舊更書		
辛巳(1881)5월選 壬午正月		7 8	7 6			14 14		김호상 불참 / 박석규 대체		
[壬午(1882)選] 癸未正月						15				
癸未(1883)5월榜日 甲申正月		7 7	8 8			15 15		/ 仍居齋		
[甲申(1884)選] [乙酉正月]								故不錄 /		
乙酉(1885)4월 丙戌正月		11 6	7 9			18 15		/ 김성동, 박상옥, 이정수 불참		
[丙戌(1886)選] 丁亥正月						15				
[甲午(1894)選] 乙未年							20	20		
[丁酉(1897)選] 戊戌2월							37	37		
壬寅(1902)6월 癸卯正月				10 10		10 10		이병태 불참 / 김용복 대체		
壬寅(1902)7월 癸卯2월				10 10		10 10				

年度別	文獻別 選拔科目	齋錄				網目 講話	庭揖 講論錄	合計	備考	
		詩賦			論表					小計
		詩	賦	未區分						
壬寅(1902)8月 癸卯3月				12 9		12 9		12 9	추가 2명 /	
癸卯(1903)3.28 甲辰正月	9 10	9 9				18 19		18 19	/ 도성호 추가	
[甲辰(1904)選] 乙巳正月		9	9			18		18	1903.3.28. 선발을 준용함	
乙巳(1905)10月 丙午正月					10 10	10 10		10 10		
乙巳(1905)11月 丙午2月					10 10	10 10		10 10		
乙巳(1905)12月 丙午3月					10 10	10 10		10 10		
合計		49 91	46 96	77 74	30 30	202 291		202 348		

『재록』을 살펴보면 선발된 자의 명단은 있는데 거재자가 없고, 거재자의 명단은 있는데 선발된 자가 없다. ‘옛 자료에 따라 다시 썼다[因舊更書]’, ‘기록하지 않는다[故不錄]’ 등의 표기가 있어서 자료의 완결성이 결여된다.

거재 인원은 348명(중복 거재 포함)인데, 선발 인원이 202명(중복 선발 포함)인 것은 이 자료에서 인원수가 많은 거재자를 중심으로 삼았기에 그러하다.<sup>81)</sup> 그러나 선발자만 있을 때는 대개가 거재한다는 점에서 [ ]에 넣어 거재자 수에 포함하였다. 또한 개인의 문집에서 수집한 낙육재 동연생 명단은 대체로 거재자 중심의 기록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선발자의 통계 수치도 낙육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81) 필자의 지난 논문(『영남 낙육재 고』, 1978)에는 선발자 297명, 거재자 331명으로 파악하였다. 거재보다 선발을 중시하여 작성한 것이다. 선발의 경우 올해 정월의 거재자 20명을 선발자로 오인하였고 1880년(15), 1894년(20), 1897년(40) 등의 75명을 추정치에 넣었다. 거재의 경우 올해 정월 20명의 오인 수와 무술 2월 實數 37명을 40명으로 잘못 본 것을 넣었다. 이번에 자료 중심으로 바로잡았다.

선발은 대개 시(詩)와 부(賦)로서 11월경에 15명을 선발하여 이듬해 정월부터 1년간 거재하였다. 도표를 보면 3월, 4월, 5월에 선발하기도 했다.<sup>82)</sup> 그러나 시기에 따라서는 선발된 자가 불참하여 대체하기도, 추가 시험을 치르기도 하였다.

신창조(申昌朝)의 『농담집(籠潭集)』에는 이러한 내용이 보인다.

농담처사 신공[申昌朝]은 약관에 사부(詞賦)로 이름났다. 일찍이 감영의 시험에 뽑혀서 낙육제에 들어갔는데, 함부로 참여하여 거재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그날로 그만두고 돌아왔다.<sup>83)</sup>

신창조(1753-1833)는 영조 말년에 낙육제생으로 선발되었다. 글을 보면 때로는 선발 시험을 거치지 않고 거재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아무튼 낙육제의 15명 선발은 대체로 1904년까지 지켜졌다. 그러나 그 중간인 1902년 6·7·8월 선발은 1903년 1·2·3월에 각각 거재하였다. 그 후 1905년 10·11·12월 선발은 시부(詩賦)가 아닌 논표(論表)를 시험하여 1906년 1·2·3월에 각각 거재하였다.<sup>84)</sup> 이처럼 1개월 단위의 선발은 거

82) 이성십, 앞의 학위논문, 「조선후기 지방교육 연구」, 33쪽의 표를 보면 제목을 ‘거재자 명단’이라 하였는데 살펴보면 선발·거재자 명단이다. 1873.11월 선발자가 1874.1월의 거재자이므로 명단이 중복되었다. 따라서 1881.5월, 1883.5월, 1885.4월의 선발자도 각기 이듬해 1월에 거재하였으므로 명단이 중복 작성된 셈이다. 특히 33쪽의 ‘주 127’의 古書라는 「齋錄」은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측에서 십 수 년 전에 베껴서 비치한 것이다. 원자료 검증이 필요했던 부분이다.

83) 申昌朝, 『籠潭集』(목활자본), 권수, 金岱鎭 撰, 「籠潭集序」, “籠潭處士申公, 弱冠以詞賦名, 嘗被選于藩司入樂育齋, 恥與冒參者居, 即日捲歸.”

84) 이성십, 앞의 학위논문, 39쪽에 8개월분 ‘우등자 명단’이 있다. 그 가운데 1905년 3월의 박규동 등 19인의 ‘道薦主事’와 1906년 2월의 27인 ‘抄選’만이 우등자라 할 수 있다. 나머지 1902년 6-8월과 1905년 10-12월의 명단은 거재를 위한 선발자이다. 40쪽의 도표의 거재자 가운데 1903년 1-3월의 경우는 앞선 해 6-8월 선발자이고, 1906년 1-3월의 경우는 앞선 해 10-12월 선발자이다. 1개월 단위로 선발·거재한 것이다. 또 1904년 1월 거재자는 1903.3.28. 선발자이다. 1902년 6월의 명단 ‘○○○’는 ‘李柄泰’임을 원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 기간도 1개월이었다. 낙육재 철폐를 목전에 둔 시점이므로 교육여건의 어려운 실상을 말해 주고 있다.

## 2) 낙육재 동연생

### (1) 인적 규모

낙육재 교육은 타지역 출신의 관찰사와 본 지역 출신의 재생[문인]이라는 사승(師承) 관계를 유지한다.<sup>85)</sup> 영남의 각 지역 출신이 한 곳에 모여서 공부하였으므로 동연우(同硯友)라 칭하였다.

낙육재에서 같은 해 함께 공부한 사람들의 명부를 보면 동연·동연록·동고록(同苦錄)이라 하였다. 용어에서 보듯이 재생들은 초보적 시문을 배우는 학생이라기보다는 1년간 거재하면서 강독·제술하는 심화의 학문연구자로서, 공동학습의 목표를 지향했다고 하겠다.

거재 정원은 앞 장에서 언급함과 같이 초창기에는 30명을 뽑아 15명씩 1개월간 교대로 거재한 적이 있었고, 1800년경부터는 15명 거재로 굳어졌다. 그러다가 1896년에 부임한 엄세영 감사는 60명을 선발한다고 하였는데, 선발·거재자 명단이 완벽하게 남아 있지 않아서 알 수 없다. 1898년의 『정읍강론록』을 보면 37명이 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1902년 이후에는 대체로 10명씩 뽑아서 1개월간 거재하였다.<sup>86)</sup>

왕조별로 전체 선발·거재자 명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왕조 구분은 재위 연간과 인원수를 감안하여 편의적으로 작성하였다.<sup>87)</sup>

85) 蔡武植, 앞의 책, 권1, 「謹呈巡相國李東蓮」, “余不佞謏才晚學忝樂育齋, 喜得出於公之門下也.”를 포함하여 낙육재 관련 문헌을 보면 대체로 이 같은 의식이 감지된다.

86) 1904년 2월 낙육재가 일본인 점거로 인해 마땅한 장소가 없었고, 1904년 10월 낙육재를 새롭게 마련했다고는 하나, 협소했을 것으로 보여서 1904년 이후는 거재 환경이 매우 열악했을 것이다.

87) 국왕의 재위 연간으로 보면 영조·정조 연간은 약 70년이고, 순조·헌종·철종 연간은 약

① 영조·정조 연간

李萬敷, 鄭葵陽, 李慢, 金聖鐸, 成爾鴻, 曹文枋, 權德升, 趙後慶, 安慶一, 柳河鎮, 成應祖, 權應奎, 權應軫, 徐述初 / 金龍翰, 宋奎膺, 朴必龍(2회), 姜鼎煥, 具鎮漢, 朴昆敬, 南子玉, 姜季昇, 朴士澄, 申昌朝, 李東榦(2회), 金采東, 曹文極, 郭興祖, 鄭履德, 韓命臣, 洪翊龍, 李成奎, 金必權, 閔師文, 蔡必勳, 李鼎儼, 李匡德, 柳東奎(2회), 白圭復, 曹克明, 辛碩儀, 金光涉, 鄭約光, 朴昆경, 郭明修, 洪益瑞, 安璜重, 朴亮源, 尹汝璜, 金敬喆, 李膺燮, 李之發, 金尙元, 金履德, 金宗益, 徐櫛, 鄭錫洪, 曹肅明, 都必宅, 徐麟復(2회), 徐八玉, 曹象奎, 李英鎮, 李鼎益(2회), 曹學敬, 張弘矩, 朴洙德, 成壽鼎, 成奎, 朴光學 (70명)

② 순조·헌종·철종 연간

朴壽亨, 鄭始煥, 李學燮, 李孚杓, 徐駟輔, 徐樸, 曹翼明, 李邦根, 趙良奎, 李衡天, 李益榮, 徐枋, 洪宇龍, 崔鎮溥, 李浩直, 李名發, 朴馨天, 李亨坤, 李景淳, 權宜烈, 李之綱, 尹東野, 尹秉恒, 李周胤(2회), 金漸運, 朴龍赫, 李楨輔, 李德章, 李直卿, 曹正基, 成禹教, 李基洪, 金顯周, 韓公璧, 申冕直, 成英駿, 李敏睦, 金益洙, 都鼎東, 李以晦, 朴熙典, 李炳楨, 柳燦, 曹範奎,<sup>88)</sup> 崔南復, 孫綸九, 都大籌, 尹甯默, 尹甯默, 朴仁壽, / 權聖烈, 張錫龍, 金鳳喜, 朴宰鉉(2회), 裴克紹, 李正斗, 徐贊奎, 尹炳九, 朴世平 / 權塿(2회), 李文翊, 李在漵, 權翌, 朴仁達, 李秉彬, 李尙斗, 金斗欽, 崔宇文, 郭聖濂, 張夔一, 都鎮洪, 具炳魯, 沈漢澤, 全洛成, 申仁植(2회), 孫敬模, 崔載鉉, 尹秉琦, 閔在南, 池德鵬, 具祥春(2회), 孫翊龜(2회), 韓容佑, 李彙邁, 金普均, 田相在, 許元枋, 呂渭龍, 金翰永, 朴天浩, 朴周大(2회), 崔東運, 朴泰鎮, 曹秉善, 全奎煥, 朴春晦, 金淵, 金台應, 朴遇尙, 李心學, 李承柱, 宋殷成(2회), 蔣義淳, 朴海文, 李東璘, 宋應毫 (106명)

60년이며, 고종 연간은 약 40년이 된다.

88) 명단 위의 曹正基로부터 曹範奎까지 15명은 영남대학교도서관 南齋文庫에 소장되어 있는 『文苑彙集』에 수록되어 있는데 1829년에 거제한 명단의 제목을 보면 「樂育齋同研錄」으로 되어 있다.

## ③ 고종 연간

權相祐, 芮東彩, 李夔秀, 宋鎮鐸, 李中範, 孫廷高, 李希相, 曹學永, 宋泰永, 柳文吉, 金洪周, 孫士希, 愼永顥, 周基東, 黃基萬(2회), 閔致魯(2회), 尹彬(2회), 李圭一(3회), 李進基(2회), 鄭彙永(2회), 尹仁錫(3회), 黃萬祚(2회), 朴奎晉(2회), 張仁燦(2회), 金在璿(2회), 卞芝錫(2회), 李鉉旼(2회), 金近性(2회), 朴珪鉉, 金誠鍊, 朴相玉(2회), 金輝溫(2회), 李尙斗, 朴文性(2회), 孫鵬海(4회), 權道淵(2회), 卞相璐, 夏錫圭, 南德熙(2회), 安浩淵(2회), 朴永煥(3회), 趙泳, 趙謙植(2회), 朴進默(2회), 李載岳(2회), 曹垌振(2회), 權啓和(2회), 金輝轍, 楊憲萬, 金敬淵, 尹德達, 金基孝, 徐鎮洪, 朴台陽, 許杓, 盧秀源, 郭民鎬, 李敬容, 李基升, 金翰奎, 尹泰龍, 蔡賢基, 金容善, 李能烈, 高允植, 洪憲燮(2회), 李庭烈, 李秉久(3회), 鄭思和(3회), 周時翌, 金源根, 申泰慶, 姜柄賢, 裴永昊, 鄭在亨, 徐嘉淳, 李根萬(2회), 禹在東(2회), 張錫義(2회), 朴海杓(2회), 李中仁(2회), 孔玟彪(4회), 河在一(2회), 權心說(2회), 李震詢(2회), 宋振學, 徐鎮國, 秋善燁(2회), 李廷孝, 權宜休, 申泰乙(2회), 芮大畿(3회), 金鎬相, 周時中(2회), 趙蕭秀(2회), 李瑋祥(2회), 徐鑽華(2회), 劉柱昊(2회), 朴廷桂(2회), 李圭穆(2회), 文璟鍾(2회), 朴顯九(2회), 朴奭奎(2회), 許壘(2회), 崔正佑, 朴世明(2회), 趙寅夏, 張龍矯, 禹昌植(4회), 李柄運, 李柄洪, 郭鍾健, 申泰魯, 金斗河, 黃在基, 呂昌會(4회), 鄭鳳述, 田溶泰, 秋桂燁, 南斗輝(2회), 金擎成(2회), 郭厚根(2회), 李龍厚(2회), 李秉魯(2회), 金城東, 徐暉榦(2회), 鄭德禧(2회), 李斗錫(2회), 卞翊晉(2회), 李彙善(2회), 南相泰(2회), 朴尙玉, 李庭樹, 芮昌根(2회), 金秉勳(2회), 都鎮商(2회), 崔廷翰(4회), 金學奎(3회), 宋泰欽(3회), 李舜性, 具達書(3회), 李貞和(3회), 成壽鎮, 禹東軾(3회), 柳煥旻(3회), 曹喜宇(3회), 徐錫東(3회), 金永銖(3회), 徐載典(3회), 具然雨, 尹奉周, 鄭煥教, 都清一, 李相軫(2회), 李義重, 安燦重(2회), 楊在輝(3회), 李柄達(2회), 鄭箕鉉, 成稷, 黃在瓚(3회), 蔡憲植(3회), 朴振鎬, 姜來相, 朴昉(2회), 李守洪, 宋泰翊, 崔晉鉉, 高彥九, 金鍾華, 安瑛重, 李在春, 孔龍秀, 金容善, 李海春(2회), 蔡武植(4회), 禹夏龍, 李鳳壽, 李福來(3회), 禹夏謨, 孫聖壽, 金益孝, 禹圭洪, 崔璘煥, 權載臯, 裴麟喜, 金廷珪, 具夏書, 許煒(2회), 申琬均(2회), 徐敬杓(2회), 禹圭煥, 黃熙壽, 許焯, 李吉恒, 韓錫權, 李寅杓, 蔡炳魯, 呂永喜, 張炳祚, 權鳳洙, 金尙東, 朴憲夏, 禹孝鳳, 鄭升載, 朴聖熙, 徐在基, 盧善九, 曹鳳永, 張斗益(3회), 全台鉉, 韓東龜

(2회), 全箕烈, 金斗鉉, 李基默, 禹熙容(2회), 金錫龍, 張丁煥(2회), 李柄連, 崔廷嶸, 李相斗, 李章和, 崔晉煥, 潘東翼, 楊在淇(2회), 李柄泰(2회), 具永奎, 嚴柱鉉, 崔坤述(3회), 蔣根翼, 崔鳳煥, 裴晉喜, 李柄迪, 全良漢, 裴憲, 金震韶, 朴在甲, 申鳳均, 徐鎭泰, 徐萬坤, 禹孝高, 白泰元, 李慶熙, 柳震河(2회), 李章白, 金輝喆, 李泰榮, 金祚根, 金相奎, 朴孝運, 金相籍, 李重和, 李龍洛(3회), 金肅鎭, 徐載鎬, 李宗熙(2회), 具定書, 徐錫台(2회), 崔奎煥, 柳基春, 金溶福(2회), 李漢春(3회), 郭鎔進(2회), 崔舜教, 李魯賢, 李柄遇, 李柄三(4회), 李熙鳳, 徐炳和, 李柄祚, 南極亨, 秋贊求, 南洙基, 李鐘澤, 金弼秀(3회), 尹炳斗(3회), 崔雲哲, 禹在浩, 李壽岳, 申東性, 朴孝建, 吳衡中(2회), 琴東烈(2회), 李文熙(2회), 丁奎鶴(2회), 金基魯(2회), 鄭寅煥(2회), 洪淵圭(3회), 金尙培(2회), 裴錫采(2회), 李秀榮(2회), 都聲浩(2회), 柳寅淑, 呂肇淵, 具京會, 李景熙, 林淳卿, 尹棟, 全益東, 李秉로, 裴炳斗, 李義瑞, 孫允謨, 李善雨, 李泰祐, 金潤植, 尹永說, 宋秉禧, 李秉玉, 金鎭輝, 楊在元, 申鉉求, 申道澈, 李奎浩, 金永旭(315명)

낙육제의 학전 규모와 연간 예산, 지출비목 등에서 흥학 예산의 풍족함을 살펴보았듯이 제생에게 관비(官費)를 지원하는 등 우대 정책을 폈으므로 도내 유생들이 한 번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시 지원하여 두세 차례 이상 선발되어 거제하기도 하였다.

낙육제 전체 동연생은 491명<sup>89)</sup>으로 나타난다. 경중 때부터 철중 때까지는 전하는 문헌이 적어서 거제자를 찾기가 어려웠고, 고종 연간에 집중되어 있다. 그 가운데는 1회 거제자 뿐만 아니라 2~4차례 선발되어 거제한 자가 있는데 이를 반영하면 연인원이 667명으로 확인된다. 낙육제 선발자의 거제 횟수별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sup>89)</sup> 1896년 경상도가 남북으로 분리되자 학전도 분리되어 1899년 진주 낙육제가 설립되었다. 491명은 진주 낙육제생을 제외한 수치이다.

〈낙육재 선발자 거제 횡수별 현황〉

횡수	거재인원	비율(%)	연인원	비고
1회	356	72.5	356	대체 거제 3명, 거제 불참 5명, 추가 선발자의 거제 불참 1명
2회	101	20.57	202	추가 거제 1명, 거제 불참 2명, 추가 선발자의 거제 불참 1명
3회	27	5.5	81	
4회	7	1.43	28	
계	491	100	667	

도표를 보면 1차로 선발되어 거제한 자가 356명으로 전체의 72.5%를 차지하고 있어서 비교적 새로운 인재가 많이 참여한 것이다. 선발되었더라도 일부의 경우는 대체 거제, 추가 거제, 거제 불참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2~4차례 선발되어 거제한 자가 135명(연인원 311명)으로 전체 27.5%나 되는데, 대개가 고종 연간의 사람이다. 후대로 오면서 여러 번 선발·거제하는 것을 영예롭게 여긴 듯하다. 1855년에 거제한 최우문(崔宇文)은 6년(6회)을 거제했다고 하는데<sup>90)</sup> 확인하기 어렵다. 이처럼 선비들이 수차례 지원하여 거제하는 현상은 어떤 이유일까? 낙육재는 젊은 재생들은 모아서 기초 학습을 다지는 학교라기보다는 연령불문 참여하여 연학(研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기 때문이다. 낙육재 동연생의 명단 즉 동창생 명단을 동연록(同研錄)이라고 한 것은 아래의 글에서도 입증된다.

무릇 「동연록」이란 문회(文會)와 같은 예(例)인데, 지금 이 재(齋)에서의 모임은 모두 한 도(道)의 사람이니, 한결같은 글자로 똑같이 일컬을 수는 없다. 다행이 견문을 넓힐 기회를 얻었는데 갑자기 손을 잡고 헤어지는 탄식을 하게 되었다. 산천이 멀리 막혀 있어 서신 왕래도 서로 뜸하게 될 터이니, 참으로 여기 모인 사람들의 성명과 주소를 적어 잊지 않으려는 뜻을 붙여 두는

90) 盧相稷, 『小訥先生文集』(목판본), 권41, 「都正崔公[宇文]墓碣銘」.

것만한 것이 없을 것이다. 뒷날 이 기록을 펴 볼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며 반드시 “어떤 사람은 어떤 주(州)에 살고, 어떤 주에는 어떤 시골이 있다.”고 말할 것이니, 비록 얼굴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정의(情誼)는 더욱 친밀해질 것이고, 소식은 통하지 않지만 마음은 암암리 통하게 될 것이다. 평범한 수록(隨錄)이 도리어 뒷날에는 길가는 사람처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어찌 큰 차이가 나지 않겠는가. 다 기록한 뒤에 금곡거사(金谷居士) 박우사(朴友士)가 이 사실을 기록해 후지(後識)를 지으라고 나에게 청하였다. 나는 사장(詞章)이 졸렬한 것도 있고 말미에 기록하여 그에게 보여주었다.<sup>91)</sup>

이정익(李鼎益)이 쓴 낙육재의 동연록 후지(後識)이다. 내용을 보면 1년간 거재할 때의 우의(友誼)가 은연히 드러나 있고, 헤어지고 나서도 연합할 때를 회상할 수 있게 동연록을 작성해 둔 것이다.

동연생과 관련하여 다음 통계를 보면 낙육재에는 어떤 연령층이 참여하여 거재하고 있었던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낙육재 거재자 연령별 현황〉

연령층	거재자	비율(%)	연령층	거재자	비율(%)
15세 ~ 19세	16	3.26	50세 ~ 54세	14	2.85
20세 ~ 24세	36	7.33	55세 ~ 59세	9	1.83
25세 ~ 29세	68	13.85	60세 ~ 64세	2	0.41
30세 ~ 34세	55	11.2	65세 ~ 69세	5	1.02
35세 ~ 39세	51	10.39	70세 이상	2	0.41
40세 ~ 44세	31	6.31	연령 미상	175	35.64
45세 ~ 49세	27	5.5	계	491	100

91) 李鼎益 著, 황의열·최석기 역주, 『교감국역 甘華集』, 『書樂育齋同研錄後』, 와우출판사, 1998, 252쪽.

연령 표기는 한 사람이 여러 번 거재했더라도 1차 때의 연령을 기준으로 삼았다. 도표를 보면 연령층이 10대로부터 70대까지 다양하다, 미상자가 많은 것은 낙육재 원자료가 많지 않고 여러 문집에서 인명을 수집했기 때문이다. 비율을 보면 전체 연령층 가운데 30대가 21.5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0대로 21.18%이며, 40대는 11.81%를 차지하고 있다. 거재자 가운데 최연소자는 청도 출신의 15세 박용혁(朴龍赫)이고, 최고령자는 상주 출신의 73세 강내상(姜來相)으로 확인된다. 재생 가운데 거창의 박희전(朴熙典)은 1873년 71세로 진사에 입격한 바 있다.

재생들이 거재할 때는 강독을 중시하였는데 낙육재의 『강목강어(綱目講語)』를 살펴보면 재생 한 사람이 『주자강목(朱子綱目)』에서 독서한 대목을 발제하여 문제를 제기하면 여러 재생들이 그에 대해 돌아가면서 답변[質疑問難 互相發明]하는 형식이다. 15명의 재생들이 각자가 한 대목씩 문제 제기하여 이와 같이 반복하면서 연마하고 있다.<sup>92)</sup>

낙육재에서 강독과 제술로 1년간 학업을 마치면 서로 헤어진다. 김영수는 3차례 선발되어 3년간을 거재하였다. 헤어질 때 시를 남겼다.

從古人生恨別離 예로부터 인생은 이별을 한스러워하는데  
 湖南湖北道之遠 호남호북 길은 멀구나.  
 天使吾儕逢有緣 하늘이 우리들을 인연 있어 만나게 했으니  
 三年毫墨共文苑 삼년 필묵으로 문원을 함께 했네.<sup>93)</sup>  
 (이하 생략)

92) 樂育齋 編, 『綱目講語』(필사본, 1895년), 2책. 그 가운데 1책은 표지 서명이 『木天麗澤』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동일하다. 책의 내용을 보면 1895년의 관찰사 李重夏 小序와 같은 해 知郡事 韓晚容의 題가 있고, 이어서 첫 번째 楊在輝의 발제 질문에 대해 李福來, 金尙東, 朴憲夏, 禹孝鳳 鄭升載, 朴聖熙, 徐在基, 盧善九, 曹鳳永 등이 차례로 답변하고 있다. 이처럼 1명씩 발제 반복하는 체제이다.

93) 金永銖, 앞의 책, 권1, 「樂育齋別席拈杜詩‘藍水遠從千澗落玉山高並兩峯寒’之句分韻得遠字吟贈」.

거재할 때 재생들은 한 이불을 덮으며<sup>94)</sup> 벗으로 우의를 다졌다. 학문을 연마하며 강독·제술에 매진하였다. 학업을 마칠 때 팔공산 유람을 하기도 했다.

전규환(全奎煥)은 1862년에 거재했던 사람이다. 그의 「증낙육재침좌서(贈樂育僉座書)」의 내용에 실려 있는 시는 팔공산에서 유람한 사실이 은연 중에 드러난다.

暮抵三樂舍 해질 무렵 낙육재에 당도하여  
 悵望八公山 시름겹게 팔공산을 바라보았네.  
 山深人不見 산 깊어 사람은 보이지 않으니  
 知是在雲間 바로 구름 사이에 있음을 알겠네.<sup>95)</sup>

이 시는 전규환이 함께 거재하였던 재생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지었다. 지난날 함께 유람했던 팔공산을 바라보면서 회상하고 있다. 서신을 보낸 점에서 앞으로 소통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 있다.<sup>96)</sup>

## (2) 문집을 남긴 재생들

낙육제 재생들의 문집을 살펴보면 영조·정조 연간 15종, 순조·헌종·철종 연간 25종, 고종 연간 36종 등 전체 76종으로 확인된다.

94) 위의 시 중간에 “所恃百年在於前，聯衾夜夜情夢穩.”이라는 구절이 있다.

95) 장인진, 앞의 논문, 「경상감영 낙육제의 교육과 문화 소통」, 276쪽, 재인용.

96) 장인진, 『영남 문집의 출판과 문헌학적 양상』, 계명대학교출판부, 2011, 162-163쪽에 의하면, 전규환의 『小心亭文集』(목활자본), 권1, 「與樂育齋諸益遊八公山」에는 내용이 다르다. “아침에 낙육재를 지나서 점심 때 팔공산에 들어갔네. 우리 열다섯 낙육재생들은 다들 흰 구름 사이에 있네(朝過三樂舍，午入八公山，吾儕十有五，共與白雲間.)”라 하였다. 본래 지난날을 회상한 사실을 적었는데, 이처럼 실제로 팔공산을 유람한 것으로 변경되어 있다.

① 영조·정조 연간

이만부(李萬敷), 식산선생문집(息山先生文集)[木, 原續別, 合28책] \*연안인, 학행 氷庫別提

정규양(鄭葵陽), 훈지양선생문집(薰篋兩先生文集)[木, 30권17책] \*오천인, 학행 顯陵參奉

이만(李攪), 고재선생문집(顧齋先生文集)[木, 10권5책] \*재령인, 禧殿參奉  
김성탁(金聖鐸), 제산선생문집(霽山先生文集)[木, 18권10책] \*의성인, 문과 (1735년) 修撰

안경일(安慶一), 농와집(壘窩集)[木活, 5권2책] \*순흥인

김용한(金龍翰), 염수헌문집(念睡軒文集)[木, 3권2책] \*경주인, 進士

강정환(姜鼎煥), 전암문집(典庵文集)[木活, 8권4책] \*진양인

신창조(申昌朝), 농담집(籠潭集)[木活, 4권2책] \*영해인

이동간(李東幹), 침산문집(砧山文集)[木, 4권2책] \*영천인

채필훈(蔡必勳), 금와유고(琴窩遺稿)[木活, 3권1책] \*인천인

이정엄(李鼎儼), 남려유고(南廬遺稿)[筆, 5책] \*여강인, 進士

이광덕(李匡德), 농산선생문집(農山先生文集)[木活, 4권2책] \*연안인, 進士

유동규(柳東奎), 숙제일고(肅齋逸稿)[屏湖世稿, 石, 6권2책] \*문화인, 개명 文奎

김이덕(金履德), 송정유집(松亭遺集)[木活, 2권1책] \*김해인

이정익(李鼎益), 감화문집(甘華文集)[木, 6권3책] \*여강인, 進士

② 순조·헌종·철종 연간

윤동야(尹東野), 현와집(弦窩集)[木活, 7권4책] \*과평인

윤병항(尹秉恒), 국괴연방집(菊槐聯芳集)[木, 6권3책] \*과평인, 進士, 개명: 秉顯

김점운(金漸運), 괴와문집(愧窩文集)[石, 4권2책] \*의성인

이정보(李楨輔), 한송재선생문집(寒松齋先生文集)[木活, 4권2책] \*선성인

박희전(朴熙典), 유간선생문집(酉澗先生文集)[木活, 5권2책] \*밀성인, 進士

최남복(崔南復), 도와선생문집(陶窩先生文集)[木, 8권4책] \*경주인, 進士

손윤구(孫綸九), 성재문집(省齋文集)[木, 4권2책] \*월성인

- 도대주(都大籌), 겸와유고(謙窩遺稿)[八莒世稿, 木活, 3권1책] \*성주인  
 장석룡(張錫龍), 유헌선생문집(遊軒先生文集)[木, 11권6책] \*인동인, 문과  
 장원 工曹判書  
 김봉희(金鳳喜), 벽오유집(碧塢遺集)[木活, 3권2책] \*경주인, 進士  
 박재현(朴宰鉉), 난석문집(蘭石文集)[石, 3권1책] \*순천인  
 배극소(裴克紹), 묵암문집(默庵文集)[木, 6권3책] \*분성인, 生員 장원  
 이정두(李正斗), 난초유고(蘭樵遺稿)[木活, 2권1책] \*합천인  
 서찬규(徐贊奎), 임계선생문집(臨齋先生文集)[木, 17권7책] \*달성인, 生員  
 윤병구(尹炳九), 소남집(小南集)[坡山世稿, 木活, 2권2책] \*파평인, 進士  
 권익(權翌), 원서문집(源西文集)[石, 3권1책] \*안동인  
 이상두(李尙斗), 쌍봉집(雙峯集)[木, 4권2책] \*인천인  
 광성렴(郭聖濂), 구양집(龜陽集)[筆, 1책]<sup>97)</sup> \*현풍인  
 민재남(閔在旻), 회정집(晦亭集)[木活, 9권5책] \*여흥인  
 지덕봉(池德鵬), 상산선생문집(尙山先生文集)[石, 5권2책] \*충주인  
 손익구(孫翊龜), 석간유고(石間遺稿)[筆, 2권1책]<sup>98)</sup>  
 허원식(許元植), 삼원당문집(三元堂文集)[木活, 2권1책] \*하양인, 문과 장원  
 正言, 초명: 栻  
 박주대(朴周大), 나암유고(羅巖遺稿)[筆, 6권3책] \*함양인, 進士  
 진규환(全奎煥), 소심정문집(小心亭文集)[木活, 6권2책] \*안산인  
 송은성(宋殷成), 백하문집(白下文集)[石, 4권2책] \*청주인, 進士

### ③ 고종 연간

- 이규일(李圭一), 역하유고(櫟下遺稿)[筆, 5권3책]<sup>99)</sup> \*월성인, 生員  
 윤인석(尹仁錫), 일암문집(一庵文集)[木活, 9권4책] \*파평인, 尹秉恒 증손  
 하석규(夏錫圭), 금애유고(錦涯遺稿)[石, 2권1책] \*대구인  
 안호연(安浩淵), 남계문집(楠溪文集)[木活, 4권2책] \*순흥인

97) 대구교육박물관 소장본(2023년 구입 자료)

98)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본(고811.081-손익구사), 崔廷翰의 『晚悟集』에는 '石磧'으로 되어 있다.

99) 동국대학교 경주도서관, 『蘇湖文庫目錄』(李相杰先生 寄贈圖書), 2001, 116-224쪽.

- 박영환(朴永煥), 죽포집(竹舖集)[木活, 3권1책] \*밀양인  
 김휘철(金輝轍), 수산문집(睡山文集)[鉛活, 6권3책] \*선성인  
 윤덕규(尹德逵), 정수집(靜修集)[坡山世稿, 木活, 1권1책] \*과평인  
 이기승(李基升), 청양유고(聽陽遺稿)[石, 3권1책] \*벽진인  
 고윤식(高允植), 태러문집(泰廬文集)[石, 4권2책] \*개성인  
 정사화(鄭思和), 백치유집(百癡遺集)[木活, 2권1책] \*오천인  
 이근만(李根萬), 소봉집(小峯集)[木活, 4권2책] \*전의인  
 이정효(李廷孝), 후송유집(後松遺集)[木, 4권2책] \*경주인  
 예대기(芮大畿), 균곡유고(筠谷遺稿)[木, 3권1책] \*의흥인  
 조선수(趙蕭秀), 동애집(東厓集)[木, 4권2책] \*함안인, 초명: 寅秀  
 박현구(朴顯九), 동호선생문집(東湖先生文集)[石, 8권4책] \*경주인, 개명: 顯求, 朴仁壽 孫  
 이병운(李柄運), 금재문집(競齋文集)[木活, 14권4책] \*인천인, 進士  
 최정환(崔廷翰), 만오집(晩悟集)[木活, 2권1책] \*경주인  
 김영수(金永銖), 만산문집(晩山文集)[石, 4권2책] \*의성인, 進士, 초명: 進銖  
 구연우(具然雨), 금우집(琴愚集)[石, 2권1책] \*능성인, 초명: 祥峻  
 윤봉주(尹奉周), 중재문집(重齋文集)[木活, 11권4책] \*과평인, 進士  
 이상진(李相軫), 만산유고(晩山遺稿)[木活, 3권1책] \*합천인, 거재한 李正斗 子  
 안찬중(安燦重), 율포유고(栗圃遺稿)[石, 4권2책] \*순흥인  
 황재찬(黃在贊), 오당시문집(梧堂詩文集)[石, 4권2책] \*장수인, 進士  
 채현식(蔡憲植), 후담문집(後潭文集)[石, 6권3책] \*인천인  
 권재고(權載皐), 유연헌집(悠然軒集)[木活, 4권2책] \*안동인  
 허위(許煒), 해촌유고(海村遺稿)[筆, 6권3책]<sup>100)</sup> \*김해인, 개명: 燦  
 우규환(禹圭煥), 단봉집(丹峯集)[木活, 7권2책] \*단양인  
 황희수(黃熙壽), 덕암선생문집(德菴先生文集)[木活, 5권2책] \*창원인  
 우효봉(禹孝鳳), 운재유집(雲齋遺集)[石, 2권2책] \*단양인  
 우희용(禹熙容), 우춘유고(又春遺稿)[筆, 3권3책]<sup>101)</sup> \*단양인

100) 錦南 許鏞(1898-1986) 소장본(필사본)의 복사본, 필자 소장.

10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古3648-55-14-1).

최곤술(崔坤述), 고재문집(古齋文集)[石, 2권2책]<sup>102)</sup> \*경주인  
우효설(禹孝高), 녹봉집(鹿峯集)[木活, 8권3책] \*단양인  
이종택(李鐘澤), 우정문집(愚亭文集)[石, 4권2책] \*경주인, 일명: 종택鍾澤  
채무식(蔡武植), 눌헌문집(訥軒文集)[石, 4권2책] \*인천인  
금동렬(琴東烈), 쌍호집(雙湖集)[木, 1책] \*봉화인  
정인환(鄭寅煥), 금사유집(錦沙遺集)[石, 2권1책] \*동래인

권·책 수 5책 이상 남긴 사람은 이만부, 정규양, 이만, 김성탁, 이정엄, 장석룡, 서찬규, 민재남 등 8명으로 확인된다. 나머지 68명은 4책 이하의 문집을 남겼다.

### (3) 재생들의 낙육재 관련 글

낙육재 491명 동연생들은 영남의 문풍을 일으키는 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이 가운데 문집을 남긴 사람은 위 명단과 같이 76명으로 파악된다.

손윤구·이정보의 「관선당기」, 최남복의 「장서각명」과 이에 대한 김영수의 관선당 수첩기와 「낙육재기」, 최무식의 장서각 수첩기와 「낙육재품목」 등을 보면 건물의 성격과 건립 및 유지 보수, 이를 주도한 관찰사 청송.비용과 노력 등을 적고 있는데, 재생이 직접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재생들이 남긴 낙육재 관련 글은 어떤 것인지 간략히 살펴본다.

시 가운데 연구(聯句)는 재생들이 공동으로 1연씩 시를 짓는 방법이다.

낙육재에 소장하고 있던 오래된 벼루를 대상으로 삼은 「낙육재고연연구(樂育齋古硯聯句)」(5言, 18韻)는 1776년에 거재한 김용한이 지었는데, 말미에 박사징이 “시정 깨달아서 문득 쓰고 보니, 비바람이 어둠 속에서도 들네 [覺詩因輒寫 風雨暗中聽.]”<sup>103)</sup>로 마무리 하였다. 또 1881년에

102) 최재욱 편, 『망국의 한』(1999)이란 서명으로 국역본이 나왔다.

103) 金龍翰, 『念睡軒文集』(목판본), 권2. 24頁, 「樂育齋古硯聯句」.

선발된 조선수의 「낙육재연구(樂育齋聯句)」(5言, 18韻) 가운데 예대기가 맡은 “여주[驪珠] 감춘 깊은 못에 보배 빛 머금었고, 매미는 나무에서 가을 소리 보답하네[驪淵<sup>104</sup>含寶彩 蟬樹報寒聲].”라고 하였는데, 명구로 보인다. 이상두의 「낙육재여제현 영당고연구(樂育齋與諸賢詠堂鼓聯句)」(5言, 36韻)는 낙육재에서 식사 등을 알릴 때 두드리는 북[鼓]을 읊었다. 이상두와 동연우인곽성림의 『낙육재창수록(樂育齋唱酬錄)』[龜陽集]에서는 동일한 시의 제목을 「재고연구(齋鼓聯句)」라 하였다. 곽성림은 변체시를 좋아하였으니, 재생들과 회문체(回文體)<sup>105</sup>로 「영류(詠柳)」를 짓기도, 장두체(藏頭體)<sup>106</sup>로 「설매(雪梅)」를 짓기도 하였다.

재생들의 시를 보면 거재할 때 읊은 것이 많다. 유동규의 「낙육재등하염운(樂育齋燈下拈韻)」을 포함하여 이정보의 「관선당시침익(觀善堂示僉益)」, 손운구의 「달성재봉입추(達城齋逢立秋)」, 윤병구의 「낙육재제우공부(樂育齋諸友共賦)」, 이근만의 「낙육재제우창수(樂育齋諸友唱酬)」, 이정효의 「낙육재독퇴계집 운운(樂育齋讀退溪集云云)」·「낙육재입춘(樂育齋立春)」·「낙육재대설(樂育齋對雪)」, 예대기의 「낙육재수제우(樂育齋誦諸友)」, 최정한의 「재거동지(齋居冬至)」, 이상진의 「낙육재입춘야여허해촌손국산공부(樂育齋立春夜與許海村孫菊山共賦)」, 안찬중의 「우음(偶吟)」, 허위의 「관선당만영(觀善堂漫詠)」, 황희수의 「낙육재여제우동화(樂育齋與諸友同話)」 등이다. 이들의 시를 보면 독서를 하며 계절을 읊고, 사물을 보고 즐기며, 강학과 토론을 하며 교류를 긴밀히 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정보가 관선당에서 벗들에게 보인 시를 본다.

이하 인용한 재생들의 시문에 대해서는 위의 “(2) 문집을 남긴 재생들” 개인별 문집명을 참조할 것.

104) 『百度百科』에 ‘驪淵’을 “藏驪珠의深淵, 喻指才思文辭의淵源.”이라 하였다.

105) 회문체(回文體)는 시를 짓되 바로 읽어도 되고 거꾸로 읽어도 되어 평측(平仄)과 운(韻)이 꼭 틀림이 없는 것을 회문체라 한다.

106) 장두체(藏頭體)는 시체의 한 가지로, 앞 구절의 끝자 속에 다음 구절의 첫 자가 감춰져 있는 체를 말한다.

吾輩羣居樂育地 우리들 여럿이 머물던 낙육재  
 邇來事業做如何 근래의 사업 어떻게 이루었나.  
 相觀取益誠眞趣 살펴서 유익함 취하니 진취가 있고  
 更把詩書好講磨 다시금 시서 잡아 강마 즐겼네.<sup>107)</sup>

관선당이라는 관선을 취한 당호에서 보듯이 재생들이 『예기』의 「학기(學記)」에서 취한 ‘서로 보고 잘하는 것을 마(摩)라고 한다[相觀而善之謂摩]’를 목표로 삼아 서로가 학업을 연마하며 권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근만이 낙육재 제우들과 창수한 시는 이러하다.

幸與諸君此地同 다행히 여러분들과 이곳에서 함께하며  
 論文樽酒兩情通 글 논하고 술 마시는 두 정이 통하였네.  
 一場名利浮雲外 한 마당 명리는 뜬구름 밖에 있고  
 百里家鄉暮雨中 백 리길 고향은 저녁 비 가운데 있네.  
 寸草久違春報志 작은 풀에 봄소식은 어킨지 오래 이고  
 仞山猶恐簣虧功 인산 만드는데 한 삼태기 흠 모자람이 두렵네.<sup>108)</sup>  
 滿庭啼鳥何心性 뜰 가득히 우는 새들 무슨 심성에서 그러는가  
 簾畔斜陽過屋東 발 밖 언덕의 석양빛은 동쪽 지붕 넘어가네.<sup>109)</sup>

이 시에서 거재생들이 평소 글을 논하면서 때로는 술잔을 들고 우의를 다지는 모습과 고향 생각하며 학습에 매진하고 자연을 음미하는 일상이 잘 표현되어 있다.

정사화의 「세모사장각송죽역주(歲暮謝澄閣送竹瀝酒)」는 세밑에 경상감사가 죽력주를 보내준 데 사례하는 시이다. 5-6구에서 “잔 기울인 궤안에

107) 李楨輔, 『寒松齋先生文集』(목활자본), 권1, 「觀善堂示僉益」.

108) 『서경』, 여오(旅槩)에 “자그마한 행동이라도 신중히 하지 않으면 끝내는 큰 덕에 누를 끼칠 것이니, 이는 마치 아홉 길의 산을 만들 적에 한 삼태기의 흠이 부족하여 그 공이 허물어지는 것과 같다.[不矜細行, 終累大德, 爲山九仞, 功虧一簣.]”라는 말이 있다.

109) 李根萬, 『小峯集』(목활자본), 권1, 「樂育齋諸友唱酬」의 2수 중에서 둘째 시.

는 거문고 서책 윤택하고, 술 취해 기댄 이불은 꿈속에도 향기롭네[傾來几案琴書潤 醉倚衾褥夢寐香].”라 하였으니, 관찰사가 보낸 죽력주에 취한 심중을 잘 표현하였다.

낙육재에서 강학할 때 관찰사와 창수한 것을 보면 민재남은 「봉차순상신공[석우] 낙육재강학운(奉次巡相申公錫愚樂育齋講學韻)」의 3-4구에서 “이로부터 유학자로 중망 있었고, 영남에서 글 읽는 소리가 잡된 소리 경계했네[從此斯文重有望 山南絃誦戒音哇].”라 하였고, 허위는 「을미정조에 석상공왕림육재(乙未正朝謫石相公[趙秉鎬]枉臨育齋)」의 5-6구에서 “관찰사가 임하여 예우를 후히 하니, 거리 아이들도 환성 지르기 넘쳤네[刺史躬臨優禮數 街童項頷溢歡聲].”<sup>110)</sup>라 하였다.

이 밖에도 이상두의 「낙육재송석김상공[학성]급제현공부(樂育齋松石金相公學性及諸賢共賦)」, 전규환의 「낙육재이방백돈영염운이시여[제생]공화이정(樂育齋李方伯敦榮拈韻以示與[諸生]共和以呈)」, 황재찬의 「경차이순상여낙육재제생공부운(敬次李巡相與樂育齋諸生共賦韻)」 등이 있다. 한결같이 육영에 이바지한 관찰사를 칭송하고 있다.

거재를 마치고 이별할 때의 임별시(臨別詩)는 김용한, 이동간, 이정익, 이정두, 이상두, 곽성림, 예대기, 이병운, 최정한, 김영수, 허위 등의 문집에 실려 있는데, 그간의 심회와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다. 관찰사를 송별할 때 지은 시는 김봉희의 「봉전방백홍공재철(奉餞方伯洪公在詰)」을 포함하여 곽성림, 예대기, 최정한, 채헌식, 채무식 등이 남겼다. 대개 칭송하는 시다.

최정한은 이현영 감사가 평소 수신을 근본삼아 언동을 하는데 대해 많은 감화를 받았는데, 1892년 이 감사가 이임하게 되자, 『대학』의 8조목을 담은 시 6수를 지어서 전별할 때 올렸다.<sup>111)</sup>

110) 許燁[개명 許燮], 『海村遺稿』(필사본, 全3冊). 권3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1982년 7월에 錦南 許鏞(1898-1986)의 협조로 필자가 복사하고 반환하였는데, 뒷날 자손들에게 들으니 원본이 분실되었다고 하였다.

6수 가운데 제 1수인 ‘격물치지(格物致知)’의 내용을 본다.

一鎮南邦甫二基 남방의 감영에서 감사 된지 겨우 2년인데  
 民爲父母士爲師 백성들은 부모로, 선비들은 스승으로 삼았네.  
 凡天下事無踰理 모든 천하의 일에는 이치를 넘지 않으니  
 推極吾知使各知 아는 바로 하여금 나의 지식을 미루어 지극히 했네.<sup>112)</sup>

이현영 감사가 어진 정사를 펴서 백성들과 선비들로부터 존경받는 점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그 자신도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지식을 명확히 하는 격물치지의 뜻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제 4수의 ‘수신(修身)’은 이러하다.

片時無敢惰吾肢 내 사지 게을러서 잠시도 과감히 하지 못했는데  
 動作周旋敬以持 동작하고 주선하는데 공경으로 몸을 간직했네.  
 及到講論讓讓席 강론하는데 이르러서는 겸양하는 자리인데도  
 尊榮刺史反居卑 존영 받던 刺史[감사]가 도리어 낮은 자리에 처하였네.<sup>113)</sup>

읍례를 행할 때나 강론할 때 보인 이현영 감사의 어진 모습을 상기하며 관찰사와 전별하던 자리에서 존모의 정을 표하고 있다.

채헌식이 조병호 관찰사를 전별할 때 올린 시를 보기로 한다.

淸淸江水餞公行 맑디맑은 강가에서 공의 행차 전별하니  
 惟我公心水與明 우리 공의 마음이 물과 더불어 밝네

111) 장인진, 앞의 논문, 「경상감영 낙육제의 교육문화와 齋生」, 140쪽.  
 112) 崔廷翰, 『晩悟集』(목활자본), 권1, 「餞別李巡相(鑄永)」, 格物致知를 포함하여 誠意, 正心, 修身, 齊家, 治國 등 6수를 지었다.  
 113) 이 시의 결구는 『맹자』, 「만장 하」의 “높은 자리를 사양하고 낮은 자리에 처하며, 부를 사양하고 가난한 데 처하려면 어떤 자리가 마땅한가? [辭尊居卑, 辭富居貧, 惡乎宜乎.]”에서 취한 것이다.

南賑飢荒遺惠澤 남방에선 기근 진휼하여 혜택을 주었고  
 西平妖孽立勳名 서방에선 요망한 재앙 평정하여 훈명을 세웠네  
 攀車不遂羣生願 수레 잡고 만류하는 제생의 원함 못 이루고  
 植栢猶存久愛情 잣나무 심은 오랜 애정 아직 남아 있네  
 兩歲英齋多勸勉 두 해 낙육재에서 권면함이 많았는데  
 非才還愧未輸誠 못난 재주로 성심 다하지 못함이 부끄럽네.<sup>114)</sup>

그는 2년간 학업을 권면해준 관찰사에게 고마운 뜻을 전하고 지난 행적까지 들추어 칭송하며 이별의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낙육재에서 행하는 향음례는 문풍 장려에 목적이 있고, 정음례는 학습과 예절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시를 읊은 사람들은 김이덕, 최남복, 손윤구, 민재남, 구연우, 우효설 등이다. 이 가운데 구연우의 시를 본다.

一省英才育此堂 영남의 영재를 이곳에서 교육하여  
 習觀揖讓效鄒鄉 읊양하는 예절 보여 추모지향 본받았네.  
 吟歌節奏周身處 음악 절주하고 예를 갖춰 주선<sup>115)</sup>하는 곳  
 德業相規敬禮場 덕업 과실 권계하며 공경히 예우하는 장소였네  
 陪席棠軒終日樂 관찰사 모신 하루는 종일토록 즐거웠고  
 滿庭珠履好風光 훌륭한 빈객 뜰에 가득하여 풍광도 좋았네.  
 幸蒙賢使賓興道 다행히 어진 감사가 빈흥의 도<sup>116)</sup> 행하니  
 復觀南方教化長 다시금 남방의 교화 길어짐을 볼 것이네.<sup>117)</sup>

이 시는 정음례를 행할 때 구연우가 관찰사 이호준(李鎬俊)의 시에 화운한 것이다. 정음례를 통하여 낙육재 교육과 예절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팔공산을 유람하면서 우의를 다지고 사물을 읊은 것은 유동규의 「여낙

114) 蔡憲植, 『後潭文集』(석판본), 권1, 「奉餞藹石趙觀察使[秉鎬]」.

115) 정음례에서는 제생들이 '揖讓周旋'을 행하였다.

116) 빈흥의 도는 선비를 높이 대접하고 천거하는 일이다.

117) 具然雨, 『琴愚集』(석판본), 권1, 「樂育齋庭揖禮席和李方伯[鎬俊]」.

육재동연우인유팔공산(與樂育齋同研友人遊八公山)」(4명), 정사화의 「여육재제우공등팔공산(與育齋諸友共登八公山)」 8수, 구연우의 「여낙육재동연우유공산사(與樂育齋同硯友遊公山寺)」(7명), 윤봉주의 「등가산암(登架山巖)」(13명) 등이다. 김영수도 기축년(1889) 여름에 본인 포함 12명이 수일간 휴가를 얻어서 팔공산에 유람한 시<sup>118)</sup>를 남겼다.

선발되어 재에 모였을 때 박희전은 관찰사 시에 차운한 「선사재회차이순상[면승]운(選士齋會次李巡相勉昇韻)」으로 고마움을 표하였고, 경학으로 선발되고 나서 이상두는 관찰사를 칭송하며 71韻의 「근정회원신상공[석우](謹呈繪園申相公錫愚)」을 남겼다.

낙육제는 시설 규모가 축소되어 1904년 대구군세소(大邱均稅所)로 이관하였다. 형조판서를 역임하였던 장석룡이 당시에 시를 지었다.

文物大東國  문물 번성한 조선나라에  
古今樂育齋  고금을 통한 낙육제로다.  
規模倣太學  규모는 태학을 모방하였고  
書籍降天階  서적은 대궐에서 내렸네.  
鄒魯分爲半  영남이 반으로 나뉘어져  
石溫各處涯  석온은 각처 물가에 있네.  
儼新仍舊號  세를 내어 옛 이름으로  
落成永言懷  낙성하며 길이 돌이켜보네.<sup>119)</sup>

낙육제가 일본인에게 점거당하는 등 지난날 화려했던 명성이 날로 쇠퇴하여 명맥만 유지하던 1904년의 시대상이 그려져 있다. 채무식 등 재생들이 관찰사에게 수차 건의하여 마침내 집을 빌려서 낙육제 현판을 달아 낙성하니, 19세에 낙육제에 선발된 장석룡<sup>120)</sup>으로서는 감회가 남달랐을 것

118) 金永銖, 앞의 책, 권1, 「己丑夏與齋中崔季鷹…諸益請暇數日遊八公山」.

119) 張錫龍, 『遊軒先生文集』(목판본), 권3, 「樂育齋移建時次寄蔡悅卿武植韻」.

120) 앞의 책, 「年譜」, 권1, “八年辛丑[1841](先生十九歲) 被營選, 居樂育齋.”

이다. ‘석온’은 낚싯대 오래 드리운 냇가의 얇아 있는 따뜻한 돌을 의미하는데, 은거하는 선비를 상징한다고 하겠다.

1807년 윤광안이 낙육재를 중수하고 관덕당에서 향음주례를 행하였을 때는 최남복, 손윤구, 이정보 등이 행사의 서문을 지었다. 선비를 우대하며 문풍을 장려한 윤 감사를 흠모한 글들이다. 이현영(李鑣永)이 향음주례를 행하였을 때는 서찬규가 「향음주례서(鄉飲酒禮序)」를 지었다. 그는 서문에서 관찰사 이숙(李黼)이 향음주례를 행한 이후로 윤광안, 이삼현(李參鉉), 이현영이 차례로 행하였다고 하였다. 또 이상두의 「낙육재수창시서(樂育齋酬唱詩序)」와 곽성림의 「낙육재창수록서(樂育齋唱酬錄序)」를 보면 김학성(金學性) 관찰사 때 선발된 데 대한 칭송과 자긍심이 담겨 있다.

윤인석의 「유낙육재서(遊樂育齋序)」에서는 팔도 가운데서 영남에 인제가 가장 많고 낙육재에는 영재들이 거재한다는 사실을 전제하며 지난 1807년 그 증조[尹秉恒, 개명: 秉顥]가 낙육재 재생으로 선발되고 향음례 때 주인찬(主人贊)을 맡아 소임을 다한 이후, 증조부 형제[尹容默, 尹甯默]가 이었고 자신이 선발되었으니 우리 집안의 문로는 나의 책임이라며 두려운 심경을 표하고 있다.<sup>121)</sup>

최정환은 1889년 4월 24일부터 5일간 동연제익(同研諸益)과 팔공산에서 유람하고 「유팔공산록(遊八公山錄)」을 지었는데<sup>122)</sup> 내용이 비교적 상세한 편이다.

121) 尹仁錫, 『一庵文集』(목활자본), 권6, 「遊樂育齋序」, “念昔純祖丁卯, 止軒尹相公[光顏], 延道內齒德, 行鄉飲酒禮於觀德堂, 時吾曾王考菊窩府君, 以妙年首居齋選, 贊相節文, 退與立齋鄭先生, 講心經大學於觀善堂, 繼而叔祖從兄弟公, 又居是齋而述是事, 一登齋堂以求, 夫吾家門路, 是吾之責矣, 而顧不肖寡陋, 安敢望紹述家事, 又安敢望追遊於一省名勝之列哉.”

한편 尹家默, 『南豊集』(목관본), 권1, 「送仁錫赴選樂育齋序」에서도 낙육재 재생에 선발된 再從孫 尹仁錫에게 菊窩[尹秉顥]를 언급하며 자긍심을 갖고 더욱 면려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122) 崔廷翰이 1889년 4월 24일 宋泰欽, 禹昌植, 具達書, 呂昌會, 禹東軾, 曹喜宇, 柳煥兢, 徐錫東, 金進銖, 徐載典, 李貞和 등 12인[재생 15명 중 3명 불참] 팔공산을 유람하고 쓴 6일 간의 기행문이다.

이동간의 「임신칠월기망여제우범주금호(壬申七月既望與諸友泛舟琴湖)」는 1777년에 거재한 그가 15년이 지난 1792년에 동연의 벗 여러 사람과 금호강에서 뱃놀이를 하였는데, 다시 20년이 흐른 1812년에 금호강에서 소동과의 「적벽부」를 연상하며 지은 것이다. 이 때 18명이 참석하였다.<sup>123)</sup> 이들은 평생 끈끈한 우정을 다졌다고 하겠다. 또 이광덕의 「방이상사망도 [정엄](訪李上舍望道鼎儼)」는 1782년에 거재한 그가 지난날 함께 거재하였던 이정엄을 후일에 방문하여 정취를 담았다.

지덕봉이 지은 「낙육재중건상량문(樂育齋重建上樑文)」을 보면 1857년 관찰사 조병준(趙秉駿)이 중건했음을 알 수 있다. 지덕봉의 「유사」를 보면 조병준이 그에게 낙육재 좌주(座主)를 맡겼다고 하는데<sup>124)</sup> 의문이다. 좌주는 재생을 선발하였던 감사에게 적용할 용어이다.

재생의 시문 가운데 오록(誤錄)이 발견되기도 한다.

안경일(安慶一, 1724-1788)은 1750년에 거재하였는데 그의 문집에 「포천유일소(褒薦遺逸疏)」가 있다.<sup>125)</sup> 글을 보면 조현명 관찰사가 영남의 유일(遺逸)을 조정에 천거하는 상소이다. 그런데 이 상소문의 주(註)를 보니, “관찰사 조현명을 대신하여 지었다.”라고 되어 있다. 그가 태어나기 십수 년 전의 글이 되므로 잘못 이입된 것이다. 유동규(柳東奎, 1759-1828)는 1784년·1804년 두 차례 거재하였는데, 그가 두 사람의 관찰사에게 드린 「근정김방백[시형](謹呈金方伯始炯)」과 「근정김방백[동필](謹呈金方伯東弼)」이 있다.<sup>126)</sup> 고증해보면 그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재임한 관찰사가 되므로<sup>127)</sup>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 문집을 편성할 때 대상 인물을 잘못

123) 장인진, 앞의 논문, 「경상감영 낙육재의 교육과 문화 소통」, 278쪽.

124) 池德鵬, 『高山先生文集』(석판본), 권5 附錄, 「遺事」에 “巡相趙公秉駿…重修樂育齋, 屬府君以樑頌, 薦府君爲座主, 義不可強辭.”이다. 그런데 「墓碣銘」에는 “趙公秉駿, 嘗按本道, 選士居齋”라 하였다.

125) 安慶一, 『龔窩集』(목활자본), 권3, 「褒薦遺逸疏」, 註를 보면 “代觀察使趙顯命撰”으로 되어 있다.

126) 柳道善 編, 『屏湖世稿』(석판본), 권1, 柳東奎, 「肅齋逸稿」 1頁. 저자는 개명한 柳文奎로 되어있다.

본 것 같다.

#### (4) 한말 애국 계몽가

허원식(許元植, 1828-1891)은 1864년 문과에서 장원급제하고 사간원 정언을 역임하였는데, 구한말 위정척사를 주장하였다. 그는 상소에서 이서배(吏胥輩)의 중간 수탈과 세납 곡물을 운반하는 조선(漕船)의 선주가 저지르는 각종 부정행위가 있으므로 국왕을 비롯한 집권세력의 성리학적 가치관의 재정립을 요구하였고, 사치풍조가 극심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개항 이후에 부상(富商)들이 외국 상인과 곡물의 밀무역을 통해 외국의 사치품을 구입하기 때문이라 지적하며 이를 엄금할 것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인천항의 개항을 극력 반대하였다.<sup>128)</sup>

박주대(朴周大, 1836-1912)는 1873년 진사에 입격하였는데, 1895년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예천 사람이 그를 예천 의진(義陣)의 창의장으로 추대하였지만 신병이 있어서 사직하고 「창의통유문」을 지어 유럽에 발송하는 등 여러 의병을 지원하였다. 1910년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자, 시가(詩歌)로써 비분한 심회를 표현하였다. 그의 배일사상을 문인·자제들에게 심어 주어, 특히 그의 영향을 받아 항일운동에 활동한 사람으로 생질 김대락(金大洛), 생질서 이상룡(李相龍), 이중업(李中業) 등이 있다.<sup>129)</sup>

송은성(宋殷成, 1836-1898)은 1879년 진사에 입격하였는데, 1884년 만언소(萬言疏)를 올려 9가지를 건의하였다. 균전(均田)[백성에게 전지를 고르게 나누어 줌], 입교(立教)[교육을 세움], 조적(糶糴)[환곡 출납], 봉전(封錢)[화폐 유통 금지], 건중(建中)[모범을 세움], 고어(固圉)[변방 방

127) 金始炯은 조현명 관찰사의 후임으로 1732-1734년에 재임하였고, 金東弼은 그보다 앞선 1724.3.-1724.9.에 재임하였다.

128) 『승정원일기』, 고종 17년(1880) 11월 11일 조 및 12월 17일 조.

129) 朴周大, 『羅巖隨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사료총서).

비를 튼튼히 함], 설험(設險)[요해지를 설치함], 알도(遏盜)[도둑을 막음], 석복(錫福)[복을 내려 줌] 등이다.<sup>130)</sup> 그 가운데 균전법은 관청에서 토지의 계권(契券)을 발급하여 토지가 많은 자에게는 더 사는 것을 금지하고, 토지가 적은 자에게는 더 사는 것을 허가하는 일종의 한전(限田)을 논한 새로운 토지제도였다.

황희수(黃熙壽, 1855-1923)는 1881년에 영남 유생들이 『조선책략』을 공박하는 척사소(斥邪疏)를 올릴 때 참여하였다.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다시 4조소(四條疏)를 올리려 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1894년 낙육제 재생으로 선발되어 거재하였는데, 당시의 경상감사 이용직(李容直)과 경상감사 이중하(李重夏)가 황정(荒政)[흉년을 구제하는 정책]과 취사(取士)[인재 뽑는 일]에 대해 질문하자, 차례로 갖추어 답하니 사리에 합당하였다. 경상도가 남북으로 분리되어 1899년(광무 3)에 진주 낙육제를 창건할 때 경상남도관찰사 조시영(曹始永)을 만나 재규(齋規)와 학칙을 논의하여 정하였다.<sup>131)</sup>

채헌식(蔡憲植, 1855-1933)은 1906년 대구 낙육제가 철폐된 후, 대구 협성학교(協成學校)를 설립할 때 초대 교장을 맡았다.<sup>132)</sup> 그는 낙육제 소유 학전의 내역을 잘 알고 있었는데, 간리배(姦吏輩)가 속여서 점유한 것이 있었으므로 이를 환수하여 협성학교의 재원으로 삼았다. 1909년 12월 일진회(一進會)에서 한일합방론은 전개하자, 그는 대구 민인(民人)의 공동 대표로서 김태림(金泰林), 서흥균(徐興均), 백응칠(白應七) 등과 일진회를 성토하며 조속히 대역죄로 사법처리 할 것을 청하였다.<sup>133)</sup> 1918년에는 대구에 문우관(文友觀)을 창건하여 제생에게 강독과 제술을 권장하며, 춘추로 강회를 열어서 유학 문풍을 장려하였다.

130) 『승정원일기』, 고종 21년(1884) 3월 20일 조.

131) 黃熙壽, 『德菴文集』(목활자본) 권5, 李中輻 찬 「행장」 및 《한국역사인물종합정보시스템》

132) 蔡憲植, 앞의 책, 「附錄」, 家狀 참조. 협성학교는 뒷날 관립 대구고등보통학교로 명맥이 이어져 현재 경북고등학교로 계승되었다.

133) 『大韓季年史』, 권9, 隆熙三年 조.

안찬중(安燦重, 1860-1930)은 1896년에 각 읍에서 창의할 때 예안 의병장 이중린(李中麟)이 그에게 의진의 서기(書記)를 맡기니 일을 잘 처리하였다. 1908년 3월 재경 영남인사들이 창립한 교남교육회(嶠南教育會)에 참여하여 활동하던 그는 1908년 재정난으로 폐교 직전에 있는 동선면 가구리의 동양학교(東陽學校)를 김영갑, 이직열 등과 함께 재건하는 등 교육구국운동을 전개하였다.<sup>134)</sup>

최곤술(崔坤述, 1870-1953)은 1906년 4월에 설립된 민중계몽단체인 대한자강회 회원이었는데 같은 해 7월에 고령군에서 입회 지원자 55명을 모아서 대한자강회 고령군 지회를 설립해 줄 것을 서울 본회에 청원하여 설립하였다.<sup>135)</sup> 대한자강회는 1907년 고종 황제의 퇴위와 순종 황제의 즉위를 반대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였고, 친일 매국단체인 일진회(一進會)를 성토하였다. 이에 통감부는 1907년 7월 27일에 공포된 보안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8월 21일 강제 해산시켰다.

## 4. 마무리

낙육재의 역사를 주요 관찰사별로 시대 구분하고, 주도적으로 공헌한 6명을 설정하였다. 조태억은 낙육재를 설립하였고, 조현명은 침체된 낙육재를 중창하여 절목[학규]을 확정하고, 토지[학전]를 마련하였으며, 영조로부터 도서 3종의 내사본(內賜本)을 받았다. 윤광안은 낙육재 중수와 함께 관선당, 장서각을 별도로 마련하고, 도서를 확충하였다. 엄세영, 조기하, 이현영 등은 학교을 일으키고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목표에 관심을 갖

<sup>134)</sup> <교남교육회잡지> 11호, 1910.4.25.

<sup>135)</sup> <대한자강회월보> 제3호, 1906.9.25.

고 일조한 사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인재 선발은 감영에서 시관(試官)을 선정하여 백일장을 열어서 선발하고, 관찰사가 면접을 하여 최종 선발하였다. 정원은 초창기에 30명을 뽑아 절반의 인원으로 1개월씩 교대로 학습하였다. 1800년경부터는 대체로 15명을 선발하여 1년간 관비(官費) 지출을 함에 따라 무료 숙식으로 거제하였다. 그러나 1902년부터는 대개 1개월 단위로 선발하여 1개월씩 거제하였다. 신교육이 대두되던 시기에 명맥을 유지하는 차원이었다. 일본인이 낙육재를 점거한 1904년 이후에는 임차한 건물에 낙육재의 현판을 걸었으므로 교육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웠다.

낙육재에서 편성한 자료는 6책 전하는데, 『재록』[동연록] 2책은 선발·거제한 인명록이고, 『강목강어』 2책은 강독 자료이며, 『정읍강론록』 1책은 제술 및 정읍례 자료이고, 『향음훈사』 1책은 1807년 향음주례의 의례를 기록한 것이다. 인명·강독 자료는 1872년부터 1905년까지 기록인데, 중간에 결락이 있다.

필자는 그간에 수집한 낙육재 동연생을 종합하였다. 영조·정조 연간 70명, 순조·헌종·철종 연간 106명, 고종 연간 315명 등 491명이다.<sup>136)</sup> 이 인원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낙육재는 경상감사의 인재 양성 의지에 힘입어 교육 예산이 비교적 풍족하였고 교육여건이 좋아서 한 번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수차례 선발되어 거제하기도 하였으니, 선발자를 거제 횟수별 살펴보면 1회 356명(72.5%), 2회 101명(20.57%), 3회 27명(5.5%), 4회 7명(1.43%) 등 491명이다. 이를 연인원으로 환산하면 667명이다. 2~4회 선발되어 거제한다는 것은 경상도 유생들이 낙육재 선발·거제를 영예롭게 여겼다고 생각한다.

낙육재 거제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5세에서 73세까지 다양하였다. 그 중에서 30대가 가장 많고, 다음이 20대이며, 그 다음이 40대이다. 낙

<sup>136)</sup> 경종 때부터 철종 때까지는 전하는 문헌이 적어서 고종 시대에 집중되어 있다.

육재가 기초 학습기관이 아닌 연학(研學)의 교육기관임을 입증해주고 있다.

재생들 가운데 문집을 남긴 사람 76명을 확인하였다. 이들이 남긴 낙육재 관련 글은 시 작품이 많다. 거재할 때 재생들이 시구를 번갈아 지었던 연구(聯句), 동일한 시제의 차운(次韻), 독서·사물·계절을 읊은 것 등 다양하였다. 관찰사와 송별할 때의 전별시(餞別詩), 동연우와 이별할 때의 임별시(臨別詩) 같은 것이 여러 편이었고, 향음례·정음례를 행할 때 읊은 것도 더러 있다. 관찰사가 술을 보내준데 사례한 시에서는 취중의 정감이 배어난다. 낙육재 이견할 때의 시에서는 남의 집을 빌려서 낙성해야만 했던 1904년 시대상이 그려져 있다.

재생의 문장으로는 낙육재 건물을 신축 또는 중수할 때 지은 기문을 포함하여 상량문, 각종 서문, 유록(遊錄) 등이 있는데 낙육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글이다. 한편 재생의 글 가운데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오록(誤錄)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세월이 지나서 편집한 문집의 글임을 감안하면 고증이 잘못되었을 것이다.

재생 가운데는 구한말 애국 계몽의식을 지닌 사람이 있었다. 위정척사를 주창한 허원식, 의병 항쟁한 박주대, 우국 의식을 보인 송은성, 유풍을 지키고자 진력한 황희수, 대구 협성학교·문우관 등을 설립한 채헌식, 의병 활동과 교육 구국운동을 한 안찬중, 대한자강회 지회 설립을 주도한 최곤술 등인데, 그 나뉠대로 성력을 다하여 낙육재를 빛내기도 하였다.

낙육재 동연생들은 1721년 설립부터 1906년 철폐 때까지 영남의 문풍을 일으키는 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 철폐된 이후 재생 가운데는 문우관을 세워 문풍을 전하기도, 협성학교를 창립하여 신교육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번 연구에서 필자는 낙육재 동연생을 각종 문헌에서 491명(연인원 667명)을 수집하여 조선시대 경상도 공교육의 ‘영학 동연파(營學 同研派)’이라는 새로운 인적자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록>에 491명의 낙육재 동연록을 수록하였으니, 앞으로 인명의 활용을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樂育齋 편, 『鄉飲訓辭』(필사본, 1807년) 1책.  
樂育齋 편, 『齋錄』(필사본, 1872-1886년) 1책.  
樂育齋 편, 『詩賦[齋錄]』(필사본, 1902-1905년) 1책.  
樂育齋 편, 『綱目講語』(필사본, 1895년) 2책.  
樂育齋 편, 『庭揖講論錄』(필사본, 1898년) 1책.
- 慶尙監營 편, 『嶺營事例』(필사본, [1841년]),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 具然雨, 『琴愚集』(석판본, 1933), 권1, 「樂育齋庭揖禮蓆和李方伯[鎬俊]」.  
權相一, 『淸臺日記』下, 丙寅(1746)조《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사료총서》.
- 金永銖, 『晚山文集』(석판본), 권1, 및 권3, 「觀善堂修葺記」,  
盧相稷, 『小訥先生文集』, 권41, 「都正崔公[宇文]墓碣銘」.  
大邱府(朝鮮)編, 『大邱府邑誌』(필사본, 1899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10838).  
大邱府(朝鮮)編, 『大邱府邑誌』(필사본, 1907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10810).  
『大韓季年史』, 권9, 隆熙三年 조.
- 柳道善 編, 『屏湖世稿』(석판본), 권1, 柳東奎의 「肅齋逸稿」.  
柳馨遠, 『磻溪隧錄』(목판본, 1770년), 卷9, 「教選之制」, 「學校事目」.  
朴周大, 『羅巖隨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사료총서》.  
徐命膺, 『保晚齋集』(聚珍字本, 1838년), 권8, 「遺愛閣記」.  
徐錫台 편, 『大邱邑誌』(연활자본, 1924년), 「樂育齋」 조.  
孫綸九, 『省齋文集』(목판본) 권2, 「觀善堂記」.

- 申綽, 『石泉遺稿』, 卷3, 「資憲大夫慶尙道觀察使尹公[光顏]墓誌銘」.
- 申昌朝, 『籠潭集』(목활자본) 권수, 金岱鎭 撰, 「籠潭集序」.
- 安慶一, 『聲窩集』(목활자본) 권3, 「褒薦遺逸疏」.
- 『輿地圖書下』(한국사료총서 제20집) > 補遺篇(全羅道) > 「完山誌」. 希顯堂 조.
- 尹家默, 『南豊集』(목판본) 권1, 「送仁錫赴選樂育齋序」.
- 尹鳳五, 『石門集』(목판본) 권3, 「聞曹生文栻 云云」.
- 尹游 撰, 『平壤續誌』(목판본, 1730년), 卷1, 22頁의 贈學庫 조.
- 尹仁錫, 『一庵文集』(목활자본), 권6, 「遊樂育齋序」.
- 李沂, 『국역海鶴遺書』. 권8. 문목文錄 6, 「樂育齋重修記」(丙申)《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사료총서》.
- 李德壽, 『西堂私載』, 권12, 「議政府左議政趙公[泰億]行狀」.
- 李敦榮 撰, 『希顯堂聯句』(필사본. 1841년) 1책.
- 李萬敷, 『息山先生續集』(목판본, 1813년) 권4, 「答趙時晦[顯命]」.
- 李參鉉, 「鍾山集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료총서8』, 1958년), 乙丑 조.
- 李楨輔, 『寒松齋先生文集』(목활자본) 권1, 「觀善堂示僉益」.
- 李鼎益 著, 황의열·최석기 역주, 『교감국역 甘華集』. 와우출판사, 1998.
- 李鑣永, 『敬窩輯略』下, 「嶠藩集略」三, 鄉飲酒禮詩并序《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료총서》.
- 張錫龍, 『遊軒先生文集』(목판본) 권3, 「樂育齋移建時次寄蔡悅卿武植韻」.
- 全奎煥, 『小心亭自說』(초고본), 「贈樂育僉座書」.
- 全奎煥, 『小心亭文集』(목활자본) 권1, 「與樂育齋諸益遊八公山」.
- 全羅監營 撰, 『全羅監營誌』(필사본. 1789년), 希顯堂 宗.
- 鄭宗魯, 『立齋先生文集』, 권4, 詩, 「達城鄉飲禮後賦其事奉贈尹方伯光顏並序」.
- 趙泰億, 『謙齋集』(필사본), 권41, 「樂育齋節目序」.
- 趙顯命, 『歸鹿集』(필사본), 권19, 「通諭道內士友文」.
- 池德鵬, 『商山先生文集』(석판본), 권5 附錄.
- 蔡武植, 『訥軒文集』(석판본), 권1 및 권3, 「藏書閣修葺記」.

- 蔡憲植, 『後潭文集』(석판본), 「附錄」.
- 崔南復, 『陶窩先生文集』(목판본), 권6, 「樂育齋藏書閣銘」.
- 海州郡 편, 『海州誌』(필사본, 조선후기), 思皇齋 조.
- 許煒[許燦], 『海村遺稿』(필사본, 全3冊). 권3.
- 黃熙壽, 『德菴文集』(목활자본) 권5. 부록《한국역사인물종합정보시스템》.
-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편, 『경상감영사례 I』, 경북대학교출판부, 2009.
- 남권희, 「경상감영 간행본과 낙육재 소장서책 분석」, 『경상감영의 종합적 연구』,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04.
- 대구시립도서관 편, 『藏書目錄 ; 日本語圖書·漢古籍 및 西洋圖書 篇』, 1977.
- 영남문화연구원 편, 『嶺營日記嶺營狀啓謄錄』,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4.
- 이성심, 「조선후기 지방교육 연구」(한국교원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장인진, 『영남 문집의 출판과 문헌학적 양상』, 계명대학교출판부, 2011.
- \_\_\_\_\_, 「영남 낙육재 고 - 특히 영남지방의 도서관적 기능과 그 효시로서」, 『圖書館報』3호, 대구시립도서관(《대구광역시통합도서관》 > 통합도서관 > 발간자료 > 圖書館報, 제3호), 1978.
- \_\_\_\_\_, 「경상감영의 낙육재 교육에 대하여」, 『漢文學研究』8집, 계명한문학회, 1992.
- \_\_\_\_\_, 「경상감영 낙육재의 교육과 문화 소통」, 『嶺南學』20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1.
- \_\_\_\_\_, 「경상감영 낙육재의 교육문화와 재생」, 『漢文學研究』23집, 계명한문학회, 2014.

<교남교육회잡지> 11호, 1910.4.25.

<대한자강회월보> 제3호, 1906.9.25.

《독립신문》. 1899년 9월 30일. 4면. 「락육지의 둔토」

《皇城新聞》. 1904년 2월 13일

《승정원일기》 (<https://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한국고문헌종합목록》 (<https://www.nl.go.kr/korcis>)

《百度百科》(인터넷자료)

## Selection of Talent by the Gyeongsanggamyeong Provincial Office and Dongyeonrok of Nagyukjae

Chang, In-jin (Hangang Studies Institute)

Key words: Nagyukjae, Yeonghak, Dongyeonrok, Jaerok, Cho Tae Yeok, Cho Hyeon Myeong, Yun Gwang An, Eom Se Young, Gyeongsanggamyeong Provincial Office, Hyup Sung School

The history of Nagyukjae (樂育齋) is divided by era based on major Inspector Generals, and 6 individuals who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have been identified. After Cho Tae Yeok (趙泰億) founded Nagyukjae, Cho Hyeon Myeong (趙顯命) rejuvenated the institution, established a clear curriculum, acquired land, and received three books as royal gifts from King Yeongjo. Yun Gwang An (尹光顏) expanded with new buildings such as Guan Seon Dang (觀善堂) and the library Jang Seo Gak (藏書閣), while Eom Se Young (嚴世永), Jo Ki Ha (趙夔夏), and Lee Heon Young (李鑣永) were committed to raising schools and fostering talent in alignment with their educational goals.

The selection of talents took place through the opening of a writing contest at the Gyeongsanggamyeong Provincial Office, selecting 30 individuals and having them alternate in one-month periods of study. Starting around 1800, approximately 15 individuals were selected each year, staying for a year with their expenses covered by the government. From 1902, selections were made monthly,

with one-month stays. This was a time when new education was emerging, and it aimed to maintain the legacy.

In this research, the author has gathered information on Nagyukjae researchers. Annually, there were 70 individuals during the reigns of King Yeongjo and Jeongjo, 106 during King Sunjo and Heonjong, and Cheoljong, 315 during King Gojong, totaling 491 individuals. Examining these numbers, the following conclusions have been drawn.

Nagyukjae had a relatively abundant education budget and good educational conditions, which allowed for multiple selections and living with lodging expenses covered by the government. Among the selected individuals, 356 (72.5%) were chosen once, 101 (20.57%) twice, 27 (5.5%) three times, and 7 (1.43%) four times, totaling 491 individuals. When calculated yearly, this becomes 667 individuals. Being selected 2-4 times and staying indicates that students considered Nagyukjae selection and residence prestigious.

Looking at the ages of those who stayed at Nagyukjae, they varied from 15 to 73 years. The largest group was in their 30s, followed by the 20s, and then the 40s. This confirms that Nagyukjae w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for advanced learning, not basic education.

76 individuals among the residents left collections of literary works. Their writings related to Nagyukjae were often in the form of poetry and included collaborative poetry, poems with the same rhyme, recitations of books, objects, and seasons, farewell poetry during observations and farewells, and poetry recited during rituals. The poems written during Nagyukjae's move in 1904 depict the

situation of that time when they had to rent houses for residence.

The residents' writings included building records, inaugural inscriptions when constructing new buildings or renovating them, prefaces for various texts, and travel records. These texts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for understanding Nagyukjae. However, some texts contained inaccuracies, which may have arisen from later editing.

Among the residents, 7 individuals were identified as holding patriotic and enlightenment ideals, including Heo Won Sik (許元弼), who led the We Jeong Cheksa (衛正斥邪) movement. After Nagyukjae was abolished, among the residents, some established the Mun Woo Gwan (文友館) to promote literature, while others founded Hyup Sung School (協成學校) to take on new educational responsibilities.

In this study, the author collected information of 491 individuals on Nagyukjae's Dongyeonrok (同研錄) (667 when considering yearly calculations) from various documents, thus providing a new human resource as a Younghak dongyeon group for the public education in Gyeongsang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The author looks forward to the future utilization of this data.

(2023.11.10. 접수: 2023.11.24. 수정: 2023.12.04. 채택)

**장인진(張仁鎭)**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의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위원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 한강학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주로 한국 문헌학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영남문집의 출판과 문헌학적 양상』(계명대학교출판부, 2011), 『4대한림 한강학의 기반, 칠곡 석담 이윤우 중가』(경북대학교출판부, 2020)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원나라 유진용 평점본의 조선전기 출판 현상」(한국학논집, 2019), 「석담 이윤우의 한강학과 기반 조성」(영남학, 2023) 등 다수가 있다.

E-mail: injin0222@hanmail.net

〈부록〉 낙육재 동연록

선발[거재]	성명	자	호	생년	본관	거주지	출처
1732년	李萬敷	仲舒	息山	1664	연안	상주	『嶺營事例』, 息山集
"	鄭葵陽	叔向	簾叟	1667	오천	영천	" 燠簾兩先生集
"	李櫻	君直	顧齋	1669	재령	"	" 顧齋集
"	金聖鐸	振伯	霽山	1684	의성	안동	" 霽山集, 文科(1735)
"	成爾鴻	仲學	翠陰	1691	창녕	상주	"
1742경	曹文弼				창녕		尹鳳五, 石門集
1746년	權德升	聞彦		1725	안동	안동	權相一, 淸臺日記, 1746.2.15일 조. 生員
1748년	趙後慶	一初			함안	대구	百弗庵集 소제 南泰良감사
1750년	安慶一	而貫	韓窩	1724	순흥	함안	韓窩集, 閱百祥감사
1755년	柳河鎭	坦然			瑞山	경주	花溪集소제 李益輔감사
1758년	成應祖				창녕	창녕	安慶一, 韓窩集, 達城日記 소제
"	權應奎	伯宗		1721	안동	永川	垎叟 鄭萬陽 外孫 文科(1765)
"	權應軫	美仲		1724	안동	永川	
"	徐述初					대구	
1776년	金龍翰	雲翼	念睡軒	1738	경주	언양	念睡軒集, 進士
"	宋奎膺						
"	朴必龍(2회)	文瑞	東山	1736	밀양	청도	1777년再
"	姜鼎煥	季昇	典庵	1741	진양	칠원	典庵集
"	具鎭漢	正叔		1746	능성	대구	
"	朴昆敬	士澄					
"	南子玉						
"	姜季昇						樂育齋古硯聯句
"	朴士澄						"
영조조	申昌朝	公晩	籠潭	1753	寧海		有冒忝同齋 卽日捲歸 籠潭集
1777년	李東榦(2회)	汝榦	砧山	1757	영천	대구	砧山集, 1792년再
"	金采東	景受				花山	
"	曹文極						
"	郭興祖						
"	鄭履德						
"	韓命臣						
"	洪翊龍						
"	李成奎						
"	金必權						
"	閔師文						
1778년	蔡必勳	德堯	琴窩	1759	인천	대구	琴窩遺稿

선발[거재]	성명	자	호	생년	본관	거주지	출처
1782년	李鼎儼	望道	南廬	1755	驪江	경주	南廬遺稿, 進士
"	李匡德	季淵	農山	1762	延安	군위	農山集, 進士
1784년	柳東奎(2회)	景五	肅齋	1759	문화	군위	屏湖世稿, 改名文奎, 1804
"	白圭復	季容					
"	曹克明	德瞻					
"	辛碩儀	成之					
"	金光涉	和之					
"	鄭約光	東瞻					
"	朴昆澈	士澄					
"	郭明修	元德					
"	洪益瑞	子裕					
1792년	安璜重						李東翰, 砧山集 壬申七月既望與[樂育齋] 諸友泛舟琴湖
"	朴亮源						
"	尹汝璜						
"	金敬喆						
"	李膺燮						
"	李之發						
"	金尙元				一善		
"	金履德	士綱	松亭	1764	김해	하양	松亭遺集
"	金宗益						
"	徐櫛	季榦		1767	달성	대구	進士
"	鄭錫洪						
"	曹肅明				창녕		
"	都必宅				성주	대구	研經書院 儒生
"	徐麟復(2회)					대구	研經書院 儒生 1802년再
"	徐八玉						
"	曹象奎						
"	李英鎭				星山		
정조연간	李鼎益(2회)	仲謙	甘華	1753	驪江	경주	李鼎益, 古今文(필사본), 同研錄 및 1804년 자료, 甘華集, 進士
"	曹學敬	望源		1756	夏城	新寧	曹克承 父
"	張弘矩	毅中		1759	玉山	성주	
"	朴洙德	乃淵		1762	密城	청도	
"	成壽鼎	元剋		1762	창녕	상주	
"	成奎	大圭		1762	창녕	상주	
"	朴光學	悅之		1765	密城	비안	

선발[거재]	성명	자	호	생년	본관	거주지	출처
1802년	朴壽亨						『경상감영의 종합적연구』 (경상북도, 2004), 295쪽
"	鄭始煥						南公轍, 尤庵影幀韻 次韻
"	李學燮						
"	李孚杓						
"	徐駟輔						
"	徐樸						
"	曹翼明						
"	李邦根						
1804년	趙良奎	雲秉		1753	巴山	대구	李鼎益, 甲子獨述營考詩 (필사본)
"	李衡天	士仰		1757	鐵城	청도	
"	李益榮	士謙	金塘	1758	벽진	金山	甘華集에서 號 취함
"	徐栻	君實		1759	달성	대구	
"	洪宇龍	幼見		1759	남양	군위	
"	崔鎭溥	士淵		1760	월성	대구	
"	李浩直	孟能		1760	벽진	창녕	
"	李名發	肅未		1761	永陽	의성	
"	朴馨天	仲逢		1761	凝川	함안	
"	李亨坤	義謙		1761	延安	군위	
"	李景淳	景道		1765	벽진		
"	權宜烈		容膝窩	1778	안동	진해	權珠, 龍耳窩集, 祭文
"	李之綱	善汝	琴山	1779	재령	청도	金在華, 醇齋集 소개
1807년	尹東野	聖郊	弦窩	1757	파평	거창	鄭宗魯, 立齋集 次贈尹 聖郊, 弦窩集
"	尹秉恒	宗範	菊窩	1773	파평	울산	鄭宗魯, 立齋集, 樂育齋生 問目, 개명: 秉顯 菊槐聯芳集, 進士
"	李周胤(2회)	文述					" 1810년再
"	金漸運	景鴻	愧窩	1782	의성	안동	愧窩金公墓碣銘(權礎夏) 愧窩集
"	朴龍赫			1793		청도	姜必孝, 海隱遺稿, 卷14, 四遊錄 소개, 15세
1810년	李楨輔	翼夫	寒松齋	1766	宣城	안동	寒松齋集
"	李德章						
"	李直卿						
1829년	曹正基	汝誠		1779	夏山	현풍	영남대학교, 南齋文庫, 『文苑彙集』 소개 樂育齋同研錄
"	成禹教	立中		1783	창녕	현풍	"
"	李基洪	顯行		1790	인천	대구	"

선발[거제]	성명	자	호	생년	본관	거주지	출처
"	金顯周	光伯		1792	김해	하양	"
"	韓公璧	宗瑞		1794	谷山	경주	"
"	申冕直	敬老		1795			"
"	成英駿	冀汝		1796	창녕	창녕	"
"	李敏睦	和瞻		1797	재령	청도	"
"	金益洙	謙彦		1799	의성	지례	"
"	都鼎東	釋和		1799	성주	河陽	"
"	李以晦	敬七		1800	廣陵	칠곡	"
"	朴熙典	文則	西澗	1803	密城	거창	" 西澗集, 1873년 71세로 進士 입격
"	李炳楨	文郁		1803	固城	청도	"
"	柳燦	榮汝		1804	문화	대구	"
"	曹範奎	士洪		1805	夏山	金山	"
순조연간	崔南復	景至	陶窩	1759	경주	경주	陶窩集, 進士
"	孫綸九	經夫	省齋	1766	월성	경주	省齋集
"	都大壽	景宅	謙窩	1775	성주	의흥	謙窩遺稿(八莒世稿)
"	尹容默	可容		1795	파평	울산	尹仁錫, 遊樂育齋序
"	尹甯默	可愚	松下	[1801]	파평	울산	"
"	朴仁壽	性五		1785	월성	義興	李晚燾 撰, 朴公行狀
1836년	權聖烈		石溪		안동		權珠, 龍耳窩集, 京行日錄
1841년	張錫龍	震伯	遊軒	1823	인동	칠곡	遊軒集, 文科 刑曹判書, 文憲公
"	金鳳喜	崎卿	碧塢	1808	경주	밀양	碧塢遺集, 進士
1846년	朴宰鉉(2회)	國見	蘭石	1830	순천	성주	蘭石集, 1870년再
1849년	襄克紹	乃休	默庵	1819	盆城	하양	默庵集, 生員 壯元
현종연간	李正斗	景七	蘭樵	1824	합천	합천	蘭樵遺稿
"	徐贊奎	景襄	臨齋	1825	달성	대구	臨齋集, 生員
"	尹炳九	舜五	小南	1801	파평	합천	小南集(坡山世稿) 進士
"	朴世平		默巖		밀성	청도	朴氏總譜
"	權堉(2회)				안동	진해	權珠, 龍耳窩集, 延贈·東 征日記. 1851년再
"	李文翊				전주	영천	"
"	李在濂	玄民	玄隱	1800	여강	경주	"
"	權翌	敬叔	源西	1804	안동	영일	" 源西集
1855년 (賦)	朴仁達	士奎	默窩	1807	밀양	울산	郭聖濂, 樂育齋唱酬錄 (대구교육박물관 소장)
" (詩)	李秉彬	維伯	蘭阜		海阜	지례	金學性 監司時
" (賦)	李尙斗	孔直	雙峯	1814	인천	함안	雙峯集

선발[거재]	성명	자	호	생년	본관	거주지	출처
" (詩)	金斗欽	敬若	竹下		안동	함양	
" (賦)	崔宇文	士弘	松阜	1815	陽川	고령	小訥集, 墓碣銘, 6年居齋?
" (賦)	郭聖濂	周彦	龜陽	1820	현풍	고령	龜陽集
" (詩)	張夔一	平仲	梅山		인동	의흥	
" (賦)	都鎭洪	致範	錦窩	1825	星山	대구	
" (詩)	具炳魯	奎應	琴坡		능주	대구	
" (詩)	沈漢澤	乃見	洛窩		청송	의령	
" (詩)	全洛成	國謙	洛下		전주	초계	
" (賦)	申仁植(2회)	養直	市隱	1830	魏州	의성	1861년再
" (詩)	孫敬模	公肅	樂山		一直	경주	
" (賦)	崔載鉉	敬寬	菊圃	1821	경주	대구	
" (賦)	尹秉琦	乃珍		1826	과평	安義	
1856년	閔在南	謙吾	晦亭	1802	여흥	함양	晦亭集
1857년	池德鵬	君學	商山	1804	충주	하양	商山集, 초명: 祥趾
1861년	具祥春(2회)	景伯	秋湖	1821	능성	대구	『樂育齋詩帖』(영남대) 1867년再
"	孫翊龜(2회)	洛玄	石間	1824	밀양	밀양	" 石間遺稿(筆, 계명대) 1890년再(67세)
"	韓容佑	聖吉		1824	청주	의성	"
"	李彙邁	禹種		1824	眞城	풍기	"
"	金普均	德中		1825	안동	안동	"
"	田相在	舜璣		1827	담양	의령	"
"	許元弼	舜弼	三元堂	1828	하양	함양	" 初名: 弼, 文科, 正言 三元堂集
"	呂渭龍	應弼		1831	성주	金山	"
"	金翰永	惠卿		1831	和義	선산	"
"	朴天浩	士健		1831	龜山	의흥	" 進士
"	朴周大(2회)	啓宇	羅巖	1836	함양	예천	" 1867년 試取 壯元 羅巖遺稿, 進士
"	崔東運	周伯		1836	耽津	지례	"
"	朴泰鎭	舜瑞		1837	밀양	거창	"
"	曹秉善	忠彦		1843	창녕	칠곡	"
1862년	全奎煥	贊玉	小心亭	1832	完山	초계	小心亭集
"	朴春晦	士吉					
"	金淵	聖道					
"	金台應	鉉可					
"	朴遇尙	弼文					
"	李心學	氣應					
"	李承柱	敬道	琴坡	1828	재령	청도	
"	宋殷成(2회)	元伯	白下	1836	청주	김해	白下集, 1878.11.再 進士

선발[거재]	성명	자	호	생년	본관	거주지	출처
"	蔣義淳	致道					
"	朴海文	命數					
"	李東璘	章汝					
"	宋應毫	尹正					
1865	權相祐	乃亨	華南	1840	안동	밀양	盧相稷, 小訥集, 行狀
"	芮東彩	雲五	菊坡	1841	의흥	청도	芮大愷, 伊山集 소재
1867	李夔秀					칠곡	樂育齋詩帖(영남대소장) 試取壯元: 朴周大
"	宋鎭鐸					상주	"
"	李中範				眞城	예안	"
"	孫廷高					대구	"
"	李希相					성주	"
"	曹學永					金山	"
"	宋泰永					榮川	"
"	柳文吉					진주	"
"	金洪周					동래	"
"	孫士希					밀양	" [字]
"	愼永願					거창	"
1872.11月 選	周基東	和仲		1822	상주	합천	齋錄(대구시립도서관 소장)[1873.1월 居齋]
"	黃基萬(2회)	致疆		1827	창원	풍기	1873.11再選, 1874.1再居
"	閔致魯(2회)	乃益		1835	여흥	산청	"
"	尹彬(2회)	文伯		1838	파평	대구	"
"	李圭一(3회)	極元	櫟下	1840	월성	경주	" 1875.1 櫟下遺稿 生員
"	李進基(2회)	海卿		1841	연안	의성	"
"	鄭奩永(2회)	性可		1841	청주	경산	"
"	尹仁錫(3회)	元叔	一庵	1842	파평	울산	" 1875.1 一庵集 尹秉恒의 曾孫
"	黃萬祚(2회)	孟綏		1842	장수	하양	" 子 黃在瓚
"	朴奎管(2회)	瑞長		1843	순천	단성	"
"	張仁燦(2회)	聖宅		1844	玉山	인동	"
"	金在璿(2회)	舜五		1845	선산	군위	"
"	卞芝錫(2회)	聖九		1847	밀양	거창	"
"	李鉉旼(2회)	佳玉		1848	연안	지례	" [2회 때 불참]
"	金近性(2회)	聖弼		1850	청풍	함창	"
1873.11	朴珪鉉	廷玉		1836	순천	의성	1874.1居
1873.11	金誠鍊	君典		1827	光州	기장	李鉉旼의 대체 居齋
1875.1居 (賦)	朴相玉(2회)	英仲		1806	울산	울산	[甲戌, 乙亥]選, 70세 1876.1再居

선발[거재]	성명	자	호	생년	본관	거주지	출처
"	金輝溫(2회)	景玉		1808	宣城	순흥	"
"	李尙斗	象七		1824	驪州	용궁	
"	朴文性(2회)	公瑞		1833	춘천	경주	1876.1再居
"	孫鵬海(4회)	順學		1842	안동	대구	" 1885. 1887
"	權道淵(2회)	學緒		1846	안동	예천	1876.1再居
"	卞相璐	路玉		1848	초계	비안	
" (詩)	夏錫圭	致成	錦涯	1817	대구	대구	錦涯遺稿
"	南德熙(2회)	士膺		1823	의령	의령	1876.1再居
"	安浩淵(2회)	孟然	楠溪	1827	순흥	순흥	1878.11再選, 楠溪集
"	朴永煥(3회)	而恒	竹鋪	1827	밀양	진해	1876.1再居 " 竹鋪集
"	趙泳	益源		1830	함안	함안	
"	趙謙植(2회)	景益		1833	함안	울산	1878.11再選
"	朴進默(2회)	汝晉		1834	함양	의흥	1876.1再居
"	李載岳(2회)	重汝		1834	德山	칠곡	"
"	曹炯振(2회)	慶九		1837	창녕	김해	"
"	權啓和(2회)	繼賢		1838	안동	안동	"
"	金輝輦	應由	睡山	1842	宣城	榮川	睡山集
1877.3월 選	楊憲萬	元瑞		1824	중화	대구	[戊寅(1778)정월거재]
"	金敬淵	景若		1830	연안	창원	
"	尹德遠	而烈	靜修	1841	과평	합천	靜修集(坡山世稿)
"	金基孝	忠兼		1843	商山	상주	
"	徐鎭洪	範五		1846	달성	대구	
"	朴台陽	孟三		1847	반남	예천	
"	許杓	極夫		1847	하양	하양	
"	盧秀源	仁可		1849	光州	창녕	
"	郭民鎬	敬誠		1850	현풍	경주	
"	李敬容	士弼		1850	성주	칠곡	
"	李基升	德造	聽陽	1851	벽진	영천	聽陽遺稿
"	金翰奎	翼汝		1851	선성	순흥	
"	尹泰龍	應雲		1852	과평	성주	
"	蔡賢基	德綏		1855	인천	대구	
"	金容善	士極	後川	1855	김해	청도	1892居, 金容善은 戊午生
1878.11월 選 (賦)	李能烈	克善			여강	경주	[己卯(1879)정월거재]
"	高允植	德顯	泰廬	1831	개성	상주	泰廬集
"	洪憲燮(2회)	休萬		1849	남양	군위	1881.1居
"	李庭烈	元瑞			고성	청도	
"	李秉久(3회)	恒叟		1827	예안	안동	1880居. 1881居

선발[거재]	성명	자	호	생년	본관	거주지	출처
"	鄭思和(3회)	中立	百癡	1831	오천	대구	" " 百癡遺集
"	周時翬	聖遇				칠원	
"	金源根	穉淵				봉화	
"	申泰慶	善夫				의흥	
"	姜柄賢	文學				하동	
"	裴永昊	夏瑞				靈山	
"	鄭在亨	德仲				언양	
1880.1. 居(賦)	徐嘉淳	勳卿		1835	대구	의성	'己卯選'표기
"	李根萬(2회)	聖實	小峯	1839	전의	의령	1881.1再居, 小峯集
"	禹在東(2회)	文兼		1841	단양	대구	"
"	張錫羲(2회)	周伯		1841	옥산	인동	"
"	朴海杓(2회)	應斗		1850	순천	칠곡	"
"	李中仁(2회)				진보	예안	"
" (詩)	孔玟彪(4회)	善汝		1824	곡부	함양	1881.1居, 1881.5選, 1883居
"	河在一(2회)	致演		1840	진주	함양	1881.1齋居
"	權心說(2회)	子命		1841	안동	안동	"
"	李震詢(2회)	孝能		1842	함안	하동	"
"	宋振學	乃益		1843	청주	김해	
"	徐鎭國	元瑞		1852	대구	대구	
"	秋普燁(2회)	士準	曙嶠	1853	추계	대구	1881.1再居
" (賦)	李廷孝	舜學	後松	1832	경주	울산	1881.1居, 後松遺集
" (賦)	權宜休	章汝		1852	안동	경주	"
1881.5月選 (賦)	申泰乙(2회)	星彦		1845	영해	영덕	壬午(1882)正月 居齋 1883.1再居
"	芮大畿(3회)	聖集	筠谷	1845	의흥	청도	" 1883選 筠谷遺稿
"	金鎬相	宣叔		1845	함창	榮川	거재 불참
"	周時中(2회)	致庸		1846	상주	칠원	1883.1再居
"	趙蕭秀(2회)	和彦	東厓	1846	함안	산청	" 초명: 寅秀 東厓集
"	李瑋祥(2회)	舜一		1854	인천	대구	"
"	徐鑽華(2회)	仲蘊		1860	대구	청송	"
"	劉柱昊(2회)	士欽		1829	강릉	안동	"
"	朴廷桂(2회)	可源		1832	밀양	청도	"
"	李圭穆(2회)	士玉		1846	경주	비안	"
"	文環鍾(2회)	奇瑞		1849	남평	합천	"
"	朴顯九(2회)	明進	東湖	1853	경주	의흥	" 개명: 顯求, 東湖集

선발[거제]	성명	자	호	생년	본관	거주지	출처
	朴爽奎(2회)	章汝		1853	밀양	삼가	1회 때 金鎬相의 대체 거제, 1883居
"	許堧(2회)	成弼	松年	1862	김해	선산	1883.1再居
"	崔正佑	純夫		1862	완산	삼가	
1883.5榜目選(賦)	朴世明(2회)	舜文	錦陽		밀양	선산	1890再居
"	趙寅夏	允萬			풍양	상주	
"	張龍矯	景三	洛厓		인동	인동	一名: 龍甲
"	禹昌植(4회)	進叔			단양	비안	1887選, 1888, 1889
"	李柄運	德七	兢齋	1858	인천	대구	兢齋集, 進士
"	李柄洪	士範			인천	대구	
"	郭鍾健	可絢	我石		현풍	현풍	
" (詩)	申泰魯	聖瞻			평산	봉화	
"	金斗河	而五			김해	예천	
"	黃在基	周八			창원	상주	
"	呂昌會(4회)	應天			성주	성주	1887選, 1888, 1889
"	鄭鳳述	致顯			초계	경산	
"	田溶泰	聖希			담양	의령	別字: 杜甫
"	秋桂燁	士沃	曉泉	1850	추계	대구	
1885.4 選(賦)	南斗輝(2회)	子明		1826	의령	선산	丙戌(1886)正月 仍居 1887.1居
"	金擎成(2회)	珽洪		1839	김녕	언양	"
"	郭厚根(2회)	文極		1843	현풍	고령	"
"	李龍厚(2회)	聲應		1849	벽진	의령	"
"	李秉魯(2회)	國夫		1856	벽진	영천	"
"	金城東	聖弼		1858	瑞興	현풍	거제 불참
" (詩)	徐暉榦(2회)	景瑞		1818	대구	경산	1887.1居
"	鄭德禧(2회)	學汝		1831	동래	동래	"
"	李斗錫(2회)	極彦		1843	덕산	칠곡	"
"	卞翊晉(2회)	龍益		1844	초계	울산	"
"	李彙善(2회)	啓老		1850	고성	청도	"
"	南相泰(2회)	銘五		1851	영양	대구	"
"	朴尙玉	文表		1851	함양	비안	거제 불참
"	李庭樹	道化		1854	고성	청도	거제 불참
"	芮昌根(2회)	武汝		1844	의흥	청도	1887.1居
"	金秉勳(2회)	克明		1848	해평	기장	"
"	都鎭商(2회)	致和		1863	성주	대구	"
1887.春 選	崔廷翰(4회)	季鷹	晚悟	1845	경주	대구	1888, 1889, 1890 晚悟集, 遊八公山錄
"	金學奎(3회)	性浩	龍岡	1838	김해	언양	1888, 1889
"	宋泰欽(3회)	聖三	竹逸	1849	야성	성주	"

선발[거재]	성명	자	호	생년	본관	거주지	출처
"	李舜性	聖浩	愚軒	1849	연안	군위	
"	具達書(3회)	士洪	竹塢	1850	능성	대구	1888, 1889
"	李貞和(3회)	元一	靑阜	1851	순천	자인	"
"	成壽鎭	正老	采下	1855	창녕	영천	
"	禹東軾(3회)	夔和	蘆山	1855	단양	대구	1888, 1889 개명: 孝軾
"	柳煥毓(3회)	致謹	仰樵	1858	문화	합천	"
"	曹喜宇(3회)	國日	小竹	1858	창녕	영천	"
"	徐錫東(3회)	致孝	可樵	1859	대구	대구	"
"	金永鉢(3회)	學一	晩山	1862	의성	안동	" 初名: 進鉢, 進士 晩山集
"	徐載典(3회)	國賓	石年	1864	대구	대구	"
"	具然雨	文極	琴愚	1843	능성	대구	[8월 내간상] 琴愚集
1890년	尹奉周	明肅	重齋	1860	파평	대구	重齋集, 進士
"	鄭煥教		白下				
"	都淸一		槐啞		성주		
"	李相軫(2회)	廷弼	晩山	1853	합천	합천	1894, 晩山遺稿, 李正斗의 子
"	李義重						
"	安燦重(2회)	舜華	栗圃	1860	순흥	안동	1892년 栗圃遺稿
"	楊在輝(3회)	希道	又峯	1862	중화	대구	1895, 1898
"	李柄達(2회)	德三	蒼潭	1861	인천	대구	1892년
"	鄭箕鉉						
"	成稷						
"	黃在瓚(3회)	章玉	梧堂	1862	장수	하양	庚寅參樂育齋選士榜 梧堂集, 父 黃萬祚 進士, 1892, 1894
1891년	蔡憲植(3회)	定汝	後潭	1855	인천	대구	樂育齋選士榜 1893, 1894. 後潭集
"	朴振鎬	厚卿	勉庵		밀양	경산	慶山郡誌
1892년	姜來相			1820	진주	상주	李鑑永, 『敬窩集略』下 「鄉飲酒禮詩并序」 (15명), 73세 거재
"	朴昞(2회)			1828	죽산	남해	1892.5.15
"	李守洪			1834	덕산	영천	
"	宋泰翊			1835	야성	榮川	
"	崔晉鉉			[1838]	경주	의성	
"	高彥九			1843	개성	용궁	
"	金鍾華			1845	錦山	산청	
"	安瑛重			1853	廣州	김해	

선발[거재]	성명	자	호	생년	본관	거주지	출처
"	李在春			1854	인천	대구	
"	孔龍秀			1856	곡부	언양	
"	金容善			1858	김해	청도	1877.3選, 金容善은 乙卯生
"	李海春(2회)			1865	인천	대구	1892.5.15
"	蔡武植(4회)			1868	인천	경산	1998.3선, 1903.3. 1905.1거. 1905.10. 訥軒集
1892.5.15. (賦)	禹夏龍				단양	김해	壬辰選士儒生榜目
"	李鳳壽					대구	
"	李福來(3회)	疇五	苔雲	1867	인천	대구	1895, 1898
"	禹夏謨					대구	
"	孫聖壽					밀양	
"	金益孝					동래	
"	禹圭洪	善若	晚樵	1848	단양	대구	
"	崔璘煥					대구	
"	權載皐	汝廣	悠然軒	1867	안동	진해	悠然軒集
"	裴麟喜					金山	
"	金廷珪					자인	
"	具夏書				능성	대구	
1893년	許燾(2회)	士弦	海村	1847	김해	선산	海村遺稿, 1894, 개명: 燾
"	申淑均(2회)	順弼	桂農		평산	대구	1894, 별호: 耻堂
"	徐敬杓(2회)		碧樵		달성		1894
"	禹圭煥		丹峯	1838	단양	대구	丹峯集
1894년	黃熙壽	命汝	德巖	1855	창원	칠원	德巖集
"	許焯	立汝		1838	김해	김해	
"	李吉恒		白蓮				
"	韓錫瓘	滢仲					
"	李寅杓						
"	蔡炳魯	聖一?					蔡武植 從姪
"	呂永喜		湖雲				
"	張炳祚						
"	權鳳洙		聽竹				
1895년	金尙東	士魯	鶴圃		청도	하양	樂育齋 綱目講語
"	朴憲夏	祥現	又蘭		밀양		
"	禹孝鳳	德汝	雲齋	1868	단양	대구	雲齋遺集, 禹圭煥 子
"	鄭升載	南吉	又錦				
"	朴聖熙	華彦	潤史				
"	徐在基	學明	石軒		달성		
"	盧善九	性舜	石圃		경주	선산	

선발[거재]	성명	자	호	생년	본관	거주지	출처
"	曹鳳永	兩極	東梧		창녕		
"	張斗益(3회)	應三		1869	인동	인동	1898, 1905.11
"	全台鉉	禹三	玉峭				
"	韓東龜(2회)	應三			청주	칠곡	1898
"	全箕烈	疇叔			용궁	영천	
"	金斗鉉	應杓			선산	군위	
"	李基默	道興			성주	성주	
"	禹熙容(2회)	晦敷	又春		단양	비안	又春遺稿(필사본), 1898년
"	金錫龍	敬緝			김해	대구	
"	張丁煥(2회)	武若		1867	인동	인동	1902.8
"	李柄連	德五			인천	대구	
1898.2월	崔廷碑					대구	樂育齋 庭揖講論錄
"	李相斗		容雲	1864	영천	대구	嚴世永 감사
"	李章和						의성
"	崔蹈煥		小溪	1868	경주	대구	
"	潘東翼	鴻瑞			岐城	청도	
"	楊在淇(2회)	龜瑞	次峯	1868	중화	대구	1902.6
"	李柄泰(2회)	汝瞻	畫石	1871	인천	대구	" [2회때 불참]
"	具永奎		竹下	1873	능성	대구	
"	嚴柱鉉						예천
"	崔坤述(3회)	子剛	古齋	1870	경주	고령	1903.3, 1905.1, 古齋集
"	蔣根翼						경산
"	崔鳳煥		錦竹	1872	경주	대구	
"	裴震喜		綠隱	1874	성산	金山	
"	李柄迪		蒼灘	1873	인천	대구	
"	全良漢						대구
"	裴憲		南愚	1872	성주	대구	
"	金震韶						하양
"	朴在甲		小湖	1878	밀양	청도	
"	申鳳均		海華	1878	평산	의흥	1896.12 本府 外庠生 入格(慶北觀察使)
"	徐鎭泰		又溪	1877	대구	대구	
"	徐萬坤	載年	槐湖	1879	대구	대구	
"	禹孝高	教源	鹿峯	1854	단양	대구	鹿峯集
"	白泰元		石灘	1877	수원	대구	
"	李慶熙		次錦	1879	인천	대구	
"	柳震河(2회)	仲汝		1881	문화	대구	1905.11
"	李章白		般霞	1878	영천	군위	
"	金輝喆						대구
"	李泰榮						대구

선발[거제]	성명	자	호	생년	본관	거주지	출처
"	金祚根					대구	
"	金相奎					대구	
"	朴孝運					선산	
"	金相籍					청도	
1901.4월	李重和			1869		예천	官員履歷書
1902.6월 選	李龍洛(3회)	應八		1867	영천	예안	齋錄(詩賦). 癸卯(1903)1월 居齋. 1903.3, 1905.1
"	金肅鎭	九敍		1869	안동	봉화	
"	徐載鎬	武卿		1874	달성	대구	
"	李宗熙(2회)	海卿		1878	인천	대구	1905.10
"	具定書	在參		1878	능주	대구	
"	徐錫台(2회)	權七		1878	달성	대구	1905.10
"	崔奎煥	聚五		1883	경주	대구	
"	柳基春	和一		1882	문화	대구	
"	金溶福(2회)	振玉		1880	김녕	대구	李柄泰의 대체 거제 1902.8.追選[불참]
1902.7월 選	李漢春(3회)	華仲		1869	인천	대구	癸卯(1903) 2월 거제 1903.3, 1905.1
"	郭鎔進(2회)	聖三		1871	현풍	대구	1903.3
"	崔舜敎	寬五		1877	경주	대구	
"	李魯賢	聖哉		1878	德山	칠곡	
"	李柄遇	德正		1880	인천	대구	
"	李柄三(4회)	台卿		1881	인천	대구	1903.3, 1905.1, 1905.12
"	李熙鳳	國鳴		1881	순천	자인	
"	徐柄和	景元		1883	달성	대구	
"	李柄祚	福慶		1885	인천	대구	
"	南極亨	良壽		1885	영양	대구	
1902.8월 選	秋贊求	伯猷		1867	추계	대구	癸卯(1903) 3월 거제
"	南洙基	魯源		1867	영양	경산	
"	李鐘澤	子宣	愚亭	1868	경주	경산	일명: 鍾澤, 愚亭集
"	金弼秀(3회)	允弘		1869	경주	대구	1903.3, 1905.1
"	尹柄斗(3회)	舜仲		1872	칠원	칠곡	"
"	崔雲哲	祥郁		1875	경주	대구	
"	禹在浩	聖老		1878	단양	하양	
"	李壽岳					칠곡	거제 불참
"	申東性	公善		1884	평산	대구	
"	朴孝建	翬洪		1879	밀양	선산	추가선발: 거제 불참

선발[거제]	성명	자	호	생년	본관	거주지	출처
1903.3.28 選, (詩)	吳衡中(2회)	允一		1858	해주	長鬚	甲辰(1904) 正月 거제 [2회: 甲辰選] 1905.1월 거제
"	琴東烈(2회)	國普	雙湖	1872	鳳城	봉화	" 雙湖集
"	李文熙(2회)	命初		1885	인천	대구	"
"	丁奎鶴(2회)	在鳴		1888	나주	대구	"
" (賦)	金基魯(2회)	聖極		1872	함창	비안	"
"	鄭寅煥(2회)	敬元	錦沙	1875	동래	군위	" 錦沙遺集
"	洪淵圭(3회)	玄甫		1881	부림	의흥	" 1906.2 거제
"	金尙培(2회)	子卿		1877	김해	자인	"
"	裴錫采(2회)	仲卿		1878	달성	칠곡	"
"	李秀榮(2회)	景玉		1881	덕산	칠곡	"
	都聲浩(2회)	漢應		1860	성주	대구	1904.1추가 거제[詩] 1905.1거제
1905.10 選 (論表)	柳寅淑	敬九		1866	문화	칠곡	丙午(1906) 정월 거제
"	呂肇淵	馨遠		1871	성산	성주	
"	具京會	載叔		1887	능주	대구	
"	李景熙	星應		1890	인천	대구	
"	林淳卿	晦叔		1874	평택	대구	(현재 청도)
"	尹棟	周見		1888	파평	대구	
"	全益東	士一		1885	정선	칠곡	
1905.11 選 (論表)	李秉璐	文玉		1864	영천	하양	丙午(1906) 2월 거제
"	裴炳斗	子星		1876	달성	대구	
"	李義瑞	見河		1879	영천	예안	
"	孫允謨	元執		1886	안동	대구	
"	李善雨	平淑		1890	경주	대구	
"	李泰祐	乃遠		1886	영천	의흥	
"	金潤植	德遠		1887	김해	대구	
1905.12 選 (論表)	尹永說	國彦		1863	파평	경주	丙午(1906) 3월 거제
"	宋秉禧	德五		1873	은진	하양	
"	李秉玉	明鈺		1874	영천	하양	
"	金鎭輝	明振		1880	의성	군위	
"	楊在元	春汝		1886	중화	대구	
"	申鉉求	自汝		1886	평산	대구	
"	申道澈	汝一		1882	평산	대구	
"	李奎浩	在玉		1880	隴西	대구	
"	金永旭	鳴振		1887	김해	대구	
합계							491명 (연인원 667명)